

| 9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8096.93 | ↑ 코스닥 | 967.81 |
| | (+612.52) | | (+56.42) |
| ↓ 금리 (연이자율) | 3.856 | ↓ 환율 (원/달러) | 1519.25 |
| | (-0.084) | | (-15.75) |



반도체 끌고 조선 밀고... 韓 경제 '飛上' 李, G7 참석차 유럽 순방길 올라

창간기획 리부트 코리아 K산업의 화려한 부활

한국 산업이 전방위 재도약기에 들어섰다.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으로 질주하는 가운데 조선과 방산이 뒤를 받치고, 자동차는 관세 역풍 속에서도 글로벌 점유율을 지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주력 산업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성장률과 수출이 주요국 최상위권에 올라섰다. 미국·유럽과의 산업 협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며 'IT·제조 강국'의 위상을 다시 쓰고 있다.

1분기 GDP 1.8% 급증
수출 2199억 달러 38% ↑
車 글로벌 점유율 상승 등
'IT·제조 강국' 위상 높여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증가해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이 5.9% 늘고 설비투자가 6.6%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9.2% 늘어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명목 GDP 성장률도 10.5%로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관련기사 3면>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

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7.8% 늘어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785억달러로 139% 급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한국은 이 기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에 올랐다.

성장의 견인치는 반도체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57조 2000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DS)부문만 53조 7000억원을 거뒀다. SK하이닉스도 고대역폭메모리(HBM) 호조로 분기 최대 이익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시기총액이 1조 5000억달러를 넘어 글로벌 톱10에 올랐다. 증권가는 내년 영업이익이 엔비디어를 제친 세계 1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KB증권 488조원)까지 내놓고 있다.

여기에 조선과 방산이 뒤를 받



李 대통령 부부, 유럽행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유럽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 경기 성남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친다. 한화오션은 1분기 영업이익 4411억원으로 2023년 출범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을 냈으며 HD현대도 2017년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ngja_lee@metroseoul.co.kr metro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 예정
美 트럼프 만남 여부 관심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유럽 방문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벨기에·유럽연합(EU)·이탈리아·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또 한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세번째 만남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20분쯤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첫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로 향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번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G7 플러스를 지지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순방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9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난 간담회를 가졌다. 10일 오전에는 드웨이브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오후에는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을 갖는 등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경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망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 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선거 끝, 커피부터 치킨까지 '외식물가 줄인상'

고환율·고유가 여파
물류·원재료비 부담 누적
더네티·롯데리아 등 인상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가 끝나가 무섭게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고환율과 중동 전쟁 장기화, 고유가 여파로 누적된 물류비와 원재료비 부담을 분사가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면서 선거 직후 커피·피자·버거 등 서민 물가와 직결된 메뉴들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양상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성비 비를 내세우던 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메가MGC커피는 오는 19일부터 '할매가커피' 제품군 3종의 가격을 각각 200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할매가커피는

2100원에서 2300원, 왕할매가커피는 3200원에서 3400원, 할매가미숫커피는 2900원에서 3100원으로 인상된다. 사측은 핵심 원료인 동결건조(FD) 커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네티도 지난달 29일부터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주요 음료 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바닐라라떼(L)는 3500원에서 3700원으로, 이천살라떼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매장 음료뿐만 아니라 시중 판매용 제품 가격도 뛰었다. 이디야 커피는 지난 6일부터 스틱 커피와 커피 믹스 제품 가격을 4.3~15.2% 인상했으며, 커피빈 역시 이달부터 바닐라라떼 최대형 포장 스틱 커피 가격을 최대 8.1% 올렸다.

피자와 버거, 일반 외식 브랜드 들도 제반 비용 증가를 견디지 못

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한국파프존스는 8일부터 코카콜라·스프라이트 등 음료 8종의 가격을 인상했다. 500ml 제품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9%), 1.25l 제품은 2300원에서 2500원으로 (8.7%) 올랐다. 단, 주요 메뉴인 피자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미노피자도 지난달 4일부터 음료 가격을 용량별로 100~200원씩 인상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도 9일부터 역전우동, 미정국수, 인생설렁탕, 제순식당, 한신포차, 돌배기집, 백스비어, 막이옴, 롤링파스타, 뽕보이피자, 새마을식당 등 11개 외식 브랜드의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약 11% 인상했다.

버거 업계는 연초부터 가격 인상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 맥도날드가 지난 2월 빅맥 등 35

개 메뉴 가격을 100~400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버거킹이 100~200원, 맘스터치가 43개 품목 가격을 평균 2.8% 인상했다. 롯데리아도 지난달 28일부터 단품 버거류 22종 등의 판매 가격을 평균 2.9% 상향 조정했다.

가격 인상 대신 제품의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굽네치킨(지앤푸드)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속 수급 불안을 이유로 닭다리살 순살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800g에서 700g으로 축소했다. 굽네치킨 측은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산 원료로 대체하는 대신, '국내산 닭다리살 사용'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메트로 한줄뉴스



- ▲ 김 총리 "참정권 민주주의의 근간... 정부 모두가 경각심 가지고 대처해야" /사진 뉴시스
- ▲ 인권위 "6·25 전시남북 피해자 보상 규정 신속히 마련해야"

- ▲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 11일 서울서 개최... 핵 억제 및 대비태세 강화 논의
- ▲ 송영길 "차기 지도부,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 대신 개혁 추동해야"

- ▲ 與 김남국 "6·3 지선 패인, '지도부 책임' 하나로 말하기 어려워"
- ▲ 현직 총리·후보자 국무회의 나란히... 金 "AI 대전환 적임" 韓 "어깨 무거워"

최태원, '에너지·AI·저출산 대응' 韓日 핵심협력 분야 제시

(SK그룹 회장)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

양국 정·재계 인사 협력방안 논의 최 회장, 한일경제연대 필요성 강조 "국제질서 만드는 '롤 메이커' 도약"

"한일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중현학술원 이사장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해 경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에 참석해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 경제지 닛케이가 주최하고 SK그룹과 최중현학술원이 기획했으며, 양국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SK수펙스

기조연설에 나선 기사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두 나라 관계를 위해 공급망, 에너지, AI 등의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며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고령화와 수조권 집중 문제 해결에도 양국 협력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가진 한일이 세계적 격변기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24년 제안한 '한일경제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자유무역 질서 약화, 미·중 갈등 심화,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등 공통 과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한일경제연대는 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롤 메이커'로도 약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에너지, AI, 저출산 대응을 양국이 함께할 수 있는 핵심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동 외 지역의 에너지 공동개발과 차세대 배터리 연구,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협력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공동 진출해 국제 표준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분야에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일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공유와 공동 인프라 구축, 규범 표준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출범한 '한일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소개하며 육아 환경과 기업 문화,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실천 모델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 회장은 협력이 정치적 상황이나

제도 차이에 흔들리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상설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 학계,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한데 모아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도쿠라마사카즈스미토모화학고문(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차세대 혁신 원전 개발에 공감했고, 가토 마사히코 미즈호은행 행장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LNG 분야 협력을 통해 한일경제연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규 SK그룹 일본총괄(사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한일경제연대가 두 나라 생존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는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며 "올해 첫 한일특별세션 개최를 계기로 AI, 에너지, 저출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두 나라 미래세대가 공존, 발전하기 위한 한일경제연대를 구체화하는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외환당국, NDF 정조준... DF 흡수방안 검토

(차액결제선물환)

(실물인도선물환)

환율대응 '레벨방어→쏠림차단' 이동 투기적 움직임 점검... 실효성 관건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1560원 돌파 이후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공개적으로 겨냥하면서 외환시장 대응의 초점이 '레벨 방어'에서 '쏠림 차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구두개입 이후 환율은 1530원대로 내려왔지만, 역외 거래와 연장거래 수급이 다시 한쪽으로 쏠림 경우 당국 대응의 실효성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8일 외환시장 메시지를 통해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일 서울 외환시장 중간거래에서 1539.1원에 마감한 뒤 같은 날 야간거래에서 1560원선을 넘어섰다. 이후 외환당국이 주말 긴급 회의를 열고 투기적 외환거래와 시장교란 의심 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빠르게 당국 경계감을

반영했다.

관계기관의 대응은 이를 연속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 이억민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원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외국인 주식 매도 등 수급 요인과 함께 일부 투기적 거래가 환율 쏠림을 가속화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당국이 NDF를 공개적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NDF는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계약 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액만 달러로 결제하는 역외 선물환 거래다. 원화가 국제적으로 완전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구조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 방향성에 베팅하거나 환헤지를 할 때 주로 활용한다.

NDF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역외 가격이 국내 현물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역외에서 형성되는 NDF 가격은 서울 정규장이 열리기 전 국내 환율 기대를 먼저 반영한다. 특히 거래가

은 시간대에 달러 매수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면 실제 국내 수급보다 원화 약세 기대를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다.

관계기관은 NDF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실물인도선물환(DF) 거래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교란 의심 행위를 점검하고, 위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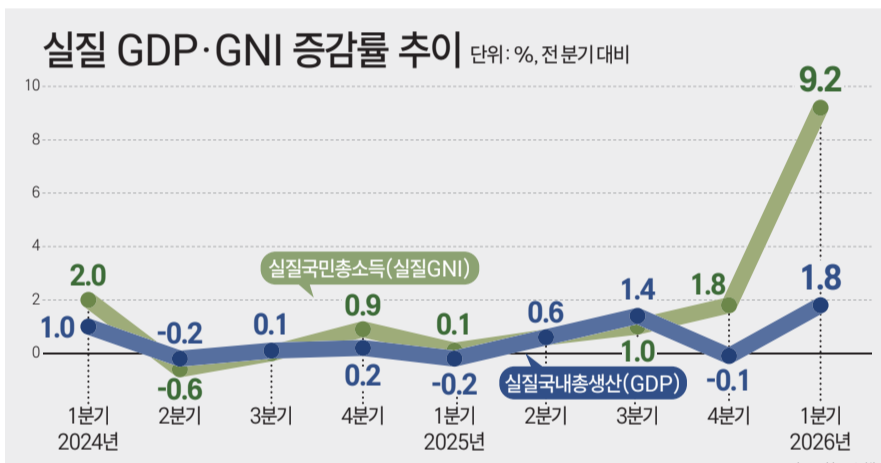
관건은 실효성이다. 구두개입은 시장 심리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지만, 역외 거래와 연장거래 수급이 다시 한쪽으로 쏠리면 환율 변동성은 재차 커질 수 있다. NDF 투명성 제고와 DF 흡수 방안은 제도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주식 매도세와 달러 수급, 중동 리스크, 미국 금리 전망이 환율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외환당국이 NDF를 정조준한 만큼 시장의 관심은 구두개입 이후 실제 거래 투명성 제고와 DF 흡수방안이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될지에 쏠리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1분기 성장률 1.8%... 실질 국민소득 9.2% ↑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설비투자 주요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전기 대비 1.8% 성장하며 속도치보다 0.1%포인트(p) 상향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이끈 가운데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9.2% 급증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성장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속도치보다 0.1%p 높은 수준이다. 속도치 추계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 일부 실적치가 반영되면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상향 수정됐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2.2%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6% 늘었다.

지출항목별로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며 전기 대비 6.6%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5.9% 늘었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증가해 3.9% 확대됐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0.6% 증가했다. 의류 등 재화 소비와 금융 등 서비스 소비가 함께 증가한 영향이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1.4% 증가했다. 반면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면서 0.4% 감소했다.

국민소득 지표는 성장률보다 더 크게 뛰었다.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9.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2% 늘었다. 실질 GNI 증가율이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돈 것은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다.

명목 GDP도 큰 폭 증가했다. 1분기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5%, 전년 동기 대비 17.1% 성장했다. 피용자보수는 제조업 임금 상승 등으로 전기 대비 4.0% 증가했고, 총영업잉여는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17.0% 늘었다.

저축률은 높아지고 투자율은 낮아졌다. 1분기 총저축률은 41.7%로 전기 대비 5.7%p 상승했다. 반면 국내총투자율은 25.3%로 2.9%p 하락했다. 가계순저축률은 8.8%로 전기 대비 0.3%p 낮아졌다.

함께 발표된 연간 국민계정에서 1인당 GNI는 5257만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고,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693달러로 0.3% 증가했다.

/김주형 기자



metro

구윤철 "물가 부문 주요품목 할당관세 검토"

"필요시 과감한 수입확대 등 관리"

정부가 소비자물가억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또 필요시 수입 물량을 과감히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사진)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정부는 환율·물가·금리 안정의 3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부총리는 "특히 물가 부문에 있어서는 할당관세 또는 공급 확대, 필요하다면 과감한 수입 확대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중동 사태에 따라 구성된 비상경제본부에서 거시경제-물가대응반장을 맡고 있다.

또 산업통상부 등의 에너지수급반은,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덕분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3주째 내리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전국평균 대비 리터(L)당 약 20원 저렴한 '착한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수주유소인 이른바 '착하다 착한 주유소' 대상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가격안정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긍정적 흐름을 기업과 산업의 활력으로 연결해, 중동전쟁 이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유럽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반도체 슈퍼사이클 2.0’ 올라타고 제조업 지도 다시 그린다

① 삼성전자

SAMSUNG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K-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지난 1분기에 메모리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되찾고 스마트폰까지 실적을 보태며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시가총액은 글로벌 10위에 올랐고, 영업이익에서는 애플을 넘어 엔비디아까지 넘는다. HBM 기술력과 파운드리 반등을 앞세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 원 중반도체(DS)부문은 53조70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66%에 달했다. AI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고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 매출은 971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85.3% 늘며 시장 규모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 신기록 DS 이익률 66%, 최대 실적 견인 D램 점유율 38.6%로 1위 탈환 SK하이닉스와 격차 9.8%P 확대 스마트폰·TV도 실적 개선 보탬

◆ 메모리 끌고 스마트폰 받치고... 실적 전방위 개선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D램이다. 9일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D램 시장 점유율 38.6%로 1위를 지켰다. 메모리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2위 SK하이닉스(28.8%)와 격차를 9.8%포인트 벌였다.

지난해 1분기 SK하이닉스에 내줬던 1위를 1년 만에 되찾은 데 이어 격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범용 D램과 서버용, 모바일 D램을 아우르는 생산 능력이 바탕이 됐다. 삼성전자의 D램 매출은 374억달러로 전 분기보다 95% 이상 늘었다.

이런 성과는 메모리 시장의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HBM과 서버용 D램 수요가 폭발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1분기 D램 계약 가격은 전 분기보다 55~60% 뛰었다. 삼성전자는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효과를 메모리 3사 가운데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메트로신문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지형이 재편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HBM에서도 기술 주도권을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 최선단 1c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해 판당 전송속도 11.7Gbps로 엔비디아 요구 기준을 웃도는 성능을 구현했다. 7세대 HBM4E는 올 하반기 샘플 출하를 계획하고 있고, 8세대 HBM5 목표도 공개하며 기술 경쟁을 차세대로 끌고 가고 있다.

HBM 사업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HBM4는 이미 올해 생산 물량이 모두 소진됐고, 3분기부터는 HBM4가 전체 HBM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 고객사들이 공급 부족을 우려해 2027년 물량까지 미리 확보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과 장기공급계약(LTA)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수출에서도 삼성전자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1분기 반도체 수출은 785억달러로 전년보다 139% 급증했고, 이 가운데 메모리가 핵심을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반도체 수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구조다.

스마트폰도 실적을 보탬다. 스마트폰·가전을 담당하는 DX부문은 1분기 매출 52조7000억원, 영업이익 3조원을 기록했다. 갤럭시 S26 울트라 등 플래그십 판매 확대도 모바일(MX)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늘었다. TV도 강세였다. 영상디스플레이(VD)는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31.3%로 1위를 지켰고, 2500

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53.4%로 절반을 넘겼다. 전장·오디오를 맡는 하반도 매출 3조8000억원을 거두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 파운드리·해외투자 '미래 동력'

파운드리와 해외투자는 도약의 새 동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테슬라와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었다. 파운드리 사업 단일 고객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계약을 발판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파운드리 사업의 흑자 전환 기대가 커지고 있다.

HBM4 양산으로 기술 주도권 강화 올해 HBM 매출 3배 성장 전망 테슬라 수주로 파운드리 반등 기대 텍사스 투자 확대로 미 거점 강화 엔비디아와 차세대 협력 논의

1분기에는 고성능 컴퓨팅(HPC) 고객 주문을 이어간 데 더해 광통신 모듈 대형 업체 물량을 수주하며 차세대 기술인 실리콘 포토닉스 사업 기반도 확보했다. 2나노 공정은 대형 고객사를 중심으로 수주를 늘리고 있다.

해외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2021년 약 170억달러로 시작한 투자 규모는 370억달러 수준으로 늘었고, 올해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미국 법인 본사도 연내

뉴저지에서 텍사스주 플레이노로 옮긴다. 기존 오스틴 공장도 모바일·네트워크 사무소에 더해 본사까지 이전하면서 미국 내 사업 축을 텍사스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함께 갖춘 종합 역량을 미국 현지에서 키우는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의 평가도 달라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시가총액 1조5000억달러를 넘어서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시총 10위에 올랐다. 1년 전만 해도 거론할 수 없던 성과다. 증권가는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분기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KB증권은 내년 영업이익을 488조원으로 제시하는 등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글로벌 영업이익 1위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글로벌 영업이익 1위인 엔비디아를 메모리 기업이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 자체가 이례적이다.

삼성전자는 추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HBM 경쟁력과 파운드리 수율을 끌어올려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입지를 더 넓힌다는 구상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샌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뒤 파운드리와 관련해 4나노·8나노 공정에서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며 다음 세대 협력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HBM4와 소켓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년부터 HBM4E와 HBM5 등에 서장기 협력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단기 호황 넘어 구조적 도약 시험대

>> 1면 '반도체 끌고...'서 계속

방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방산 수주잔고가 3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두 산업 모두 수출 호조 속에 외형보다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장벽 속에서 꺾이며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영향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앞세워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을 6.0%로 끌어올렸다. 현대차·기아는 5월 미국에서 하

이브리드 판매 역대 최고 실적을 새로 썼다. 기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사상 처음 4%를 넘어섰다. 전기차 둔화 국면에서 하이브리드로 수요를 흡수하며 미국 시장을 지켜내는 모습이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K-산업의 위상도 달라졌다. 엔비디아는 8일 SK하이닉스와 메모리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삼성전자와는 HBM4·파운드리 협력을 논의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하이브리드 현지 생산을 시작하며 관세 부담을 현지화로 정면 돌파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미국 해군 함정

협력을, 방산업계는 유럽·중동 등지로 수출전선을 넓히고 있다. 한국 기업이 단순 부품 공급자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성장이 반도체에 쏠린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25%에서 54%로 뛰었지만, 최근 반도체주 급락으로 'AI 거품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동차업종이 겪고 있는 대미 관세처럼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다. 결국 반도체 의존을 낮추고 조선·방산·자동차 등으로 성장 축을 좀더 넓히는 것이 이번 호황을 단기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도약으로 잇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삼성 'AI 대전환'... 사장단부터 전 직원 대상 AI 교육 진행

생산 등 모든 밸류체인에 AI 접목
전체 사장단 50여명 대상 첫 교육
전 관계사에 'AI 전담조직' 신설도

삼성이 전체 관계사 모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고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에 'AI 대전환'을 선언했다.

삼성은 연구개발(R&D)부터 생산, 마케팅, 지원 업무까지 모든 밸류체인에 AI를 접목시키고 전체 사장단을 대상으로 첫 AI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사별로 AI 전담 조직도 신설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AI 시대를 주도하고 도약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사장단과 임원,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등 기업 DNA 자체를 AI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데 혁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은 이달 중 경기 용인 삼성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전(全) 관계사 사장단 50여



삼성 관계사 임원들이 인력개발원 창조관에서 AI 집중교육을 받고 있다. /삼성

명에 대한 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또 관계사 임원 교육은 오는 8월12일까지 각 차수별로 2박3일간 23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과 인력개발원 창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은 이번 사장단과 임원 교육을 전

사적 AX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고, 경영진들이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조직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사장단·임원 외 삼성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할 예

정이다. 특히 전 관계사 사장단은 'AX 부트 캠프'에서 공동 'AX 비전'도 선포할 계획이다.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일하는 방식과 마음가짐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어떠한 기업도 한 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과 강력한 실행 의지를 담은 예정이다. 또 AI 교육기간 동안 사장단은 수동적으로 교육 받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한 각 사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AI 생태계 구축에 이어, 조직 DNA까지 AI를 바탕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 관계사는 "AI 대전환은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의 출발점으로, AI 시대의 기회를 선점하고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가 강력하게 8대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해 경

영 혁신을 직접 주도해 나가면서, AX를 통한 혁신 컴퍼니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은 전 관계사에 'AI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AI 전담조직은 각 사 사업의 특성에 맞춘 AX 추진 전략 수립, 데이터 및 모델 운영 관리, AI 인재 육성 등을 전담하며 그룹 전반의 AX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6월 중 제미니, 챗GPT,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 DNA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며 "R&D부터 생산, 마케팅, 지원 등 모든 업무 밸류체인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AI 서버 붐... 삼성전기·LG이노텍, '영업이익 1조' 기대감

삼성전기 1.5조, LG이노텍 1조 추정
MLCC·FC-BGA 수요 급증 영향
양사 생산라인 풀가동으로 대응
베트남 중심 증설... 생산능력 확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 서버 시장 성장에 힘입어 올해 나란히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관련 제품 생산라인 가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공장 증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최근 집계한 증권사 실적 전

망치 기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각각 1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기의 연간 영업이익은 1조 5000억원 안팎, LG이노텍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망치가 현실화될 경우 양사는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영업이익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 같은 실적 개선 전망에는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와 FC-BGA(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기는 서버용 F

C-BGA와 AI서버용 MLCC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삼성전기는 지난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서버용 FC-BGA 양산에 성공하면서 엔비디아와 AMD, 구글 등 빅테크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최근에는 일부 고객사 대상으로 FC-BGA 가격 인상에 나선 데다 수요 우위 환경을 바탕으로 고사양 제품 중심의 선별 수주도 가능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같은 해 FC-BGA 사업에 진출한 LG이노텍 역시 2년 만에 글로벌 빅테크에 PFC용 FC-BGA를 공급하는 성과를 내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양사는 생산 라인도 사실상 풀가동 상태에 가깝게 유지 중이다. 삼성전기의 올 1분기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 평균 가동률은 86%를 기록했다. LG이노텍 역시 같은 기간 반도체 제조 설비 가동률이 91.8%에 달하며 높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AI 서버용 기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 능력 확대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FC-BGA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베트남 공장에 1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기는 부산공장

와 베트남 공장에서 FC-BGA를 생산 중이다.

LG이노텍도 다음달부터 베트남 공장에 대한 증설 투자를 진행한다. 지난 4월 회사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베트남 하이퐁시와 반도체 기판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증설은 베트남 생산법인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 착공해 오는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부지 규모는 축구장 45개 크기에 해당하는 9만 8000평에 달한다.

증설 공장에는 통신용 반도체 기판(RF-SiP), 플립칩-칩스케일패키지(FC-CSIP),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생산할 전망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metro

watv.org



평화롭고 포용적인 지구촌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주신 5800건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일.

하나님의 교회 국내외 400만 성도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머니 사랑의 마음'으로 지구촌 가족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사회와 지구촌의 안녕을 위해 긴급구호, 빈곤-기아해소, 교육지원, 안전사회조성 등 4만 7000여 회 봉사를 900만여 세계 시민과 함께 펼쳐오며, 각국에서 5800여 회 상을 받았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민국 3대 정부 대통령상, 미국 4대 정부 대통령 자원봉사상,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브라질 입법공로훈장, 페루 국회훈장.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답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SK 선대회장 | 최 종 현

- 1979 | 2차 오일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산 5만 배럴 원유 공급 확보
- 1984 | 무자원 산유국 첫 발견, 북예멘 마리브 광구 유전 발견
- 1998 | 아시아 지역 새로운 도전, 베트남 15-1광구 석유 개발 시작
- 2010 | 페루 LNG 가스생산, 수송, 수출 수직계열화 완성
- 2014 | 안정적인 LNG 확보를 위한 미국 우드포드 가스전 지분 투자
- 2018 | 독자 운영 및 자체 기술로 남중국해 17/03 광구 원유 발견 성공
- 2022 | 동남아 자원 거점 확대, 말레이시아 SK427 광구 운영권 확보
- 2025 | 자원 영토 확장, 인도네시아 3개 탐사 광구 지분 확보
- 2026 | 호주 바로사 가스전 LNG 첫 도입, 20년간 안정적 공급

작은 가능성에도
수천 미터를 파 내려가고
먼 미래를 위한 일일지라도
주저 없이 바다를 건넌습니다

지난 6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의 답을 찾아갑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민주 8월17일 전대 가닥...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파전'

차기 당대표 선출 위한 전당대회 정청래 연임 도전 속 책임론 확산 공개활동 줄이고 당내 여론 살펴 최고위 선거도 친청계 vs 반청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1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차기 당권 경쟁도 본격 막이 오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당 복구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돌아온 송영길 의원 간 3파전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는 8월 중에 하되 가장 이른 시기인 8월 17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개최 일정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한다. 이에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한 뒤 오는 10일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의원.

/뉴시스

당무위원회,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정청래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은 당헌·당규상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 정 대표 등이 관례상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는 권역별 순회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며 당 인품의 여

론을 살피고 있다. 그동안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5일 의원총회·본회의, 6일 제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등을 제외하고 별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다만 오는 12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이번주 후반부터는 공개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 대표는 전당대회 일정 확정 흐름에 맞춰 당 대표직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과 민찬 회동을 진행하는 등 소속 의원들과 접촉면도 넓히고 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이를 고리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정청래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C '뉴 호남 포럼'에서 "국정 기대치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못하다. 지금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선거 직후인 지난 4일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언급했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인 이만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8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정청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한편 최고위원 선거도 친청(친정청래)계와 반청(반정청래)계가 맞붙는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이자 비당권파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성준·이건태 의원의 도전이 점쳐진다. 친청계 중에서는 이성윤 현 최고위원의 연임 도전, 최민희·임오경 의원의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오늘 국힘 원내대표 선거... 張 체제 분수령

(장동혁 대표)

김도읍·성일종·정점식 의원 출마 선거 패배 장동혁 대표 책임론 제기

10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 사령탑이 선출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장동혁 지도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내대표에 나선 이들은 김도읍·성일종·정점식(가나다 순)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의 광역단체장에서만 이겼다. 당내에선 지방선거가 민주당에 패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난 9일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심지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치

이슈로 몰고 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커지면서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사퇴를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권파는 대통령 지지율이 60% 육박하는 불리한 선거 지형에서 이 정도면 선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재보궐선거에서 4곳을 이기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석으로 기존보다 3석이 늘었고, 서울시장을 수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비당권파나 소장파들은 장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패배했

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신승리·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거론하면서 "간단히 두 글자로 얘기해서 참패"라고 말했다. 대구 지역 의원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대구 지역 선거에서" 장 대표는 사실상 거의 영향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며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책임론이었다"고 말했다.

일부 중진들도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사퇴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선 중진이자 서울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6·3 지방선거는 객관적으로 진



국민의힘 정점식(왼쪽부터), 김도읍, 성일종 원내대표 후보자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공동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 사퇴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이 앞으로 선거를 지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해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정

점식 의원과 김도읍·성일종 의원 역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일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장 대표를 사퇴 압박을 덜 받게 된다. 반면 비당권파가 원내 사령탑이 될 경우에는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은 강해질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李 G7 출국 환송행사에 민주 지도부 불참

"현안 집중 위해 환송 행사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짙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부수석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통상 환송 행사에 참석했던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공항을 찾지 않았다. 당 핵심 지도부가 공항에

나와 대통령을 환송·배웅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투표 용지 부족) 사태도 있고,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돼서 환송 행사를 최소화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며 "(당과 청와대가) 서로 소통을 했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전시 개막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 대표를 (환송 행사에)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부실투표라는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 우르르 나가기보다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만 제외된 배경에 대해서는 "당이 더 바쁠 때"라며 "국회가 하는 역할이 많을 때. 알다시피 입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관위 관련 압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며 "지금 입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될 때이고, 환송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할 때란 인식이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전날(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등 선거 결과를 둘러싼 당정간 미묘한 기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당 인사들은 나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울러 정 대표는 환송행사에 불참한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환송행사에 참석한 것도 대비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무총리의 환송행사 참석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오는 8월 실시될 민주당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사실상 김 총리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재계 총수와 유럽행... 李, 경제외교 행보

>> 1면 '李, G7 참석차'서 계속

이 자리에선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한-EU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대통령은 11~13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 11일에는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국빈 만찬을 갖고, 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는다.

12일 저녁엔 이 대통령 방문 계기로 이뤄지는 한-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와 최수연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3일에는 소도시를 방문하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이 대통령이 파렌체를 방문한다.

14~15일 양일간 이 대통령은 바티칸을 방문한다. 14일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

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국제 정세 속에서 전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밝힌다.

15일엔 레오 14세 교황 및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각각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후 약 1년여 만에 우리 정상의 교황청 방문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는 16~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캐나다 카나스키스에 이어 취임 후 2년 연속 참석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효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G7 초청국 자격으로 확대회의 세션에 참석하고, 16일 저녁에는 프랑스측이 준비한 공식만찬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더 크게 자라날 아이들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가 아이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눈높이 금융교육 지원

- 어린이 경제 뮤지컬 공연 개최
- 어린이 금융교실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운영

보육환경 개선 및 돌봄 공백 최소화

- 100호 어린이집 건립
-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

자연을 주제로 34년째 이어온 환경 미술대회

-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손보사, 5세대 실손 출시... 신규판매 보다 '계약 전환' 관건

기존 실손, 적자·손해율 악화 지속
5세대 실손, 보험료 확 줄이고
과잉진료·과다청구 예방 취지
11월 선택형 할인특약 '분수령'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한 달을 맞았지만 손해보화사의 진짜 부담은 여전히 기존 실손보험에 남아 있다. 새 상품은 보험료를 낮추고 비급여 보장 구조를 손질했지만, 이미 쌓인 1~4세대 계약의 손해율 부담이 단기간에 줄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지난달 6일부터 출시 판매되고 있다. 5세대 실손은 급여와 중증질환 보장을 중심으로 상품 구조를 재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자기부담률을 높여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험료는 4세대 실손 대비 약 30%, 기존 1~2세대 실손 대비 절반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계약에 남은 '적자'

문제는 새 상품 출시가 기존 실손보험



Chat GPT가 생성한 1~4세대 및 5세대 실손보험 이미지.

의 적자 구조를 곧바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62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만 건 증가했다. 보험료수익은 18조원으로 10.0% 늘었지만, 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11.4% 증가했다. 보험금 증가폭이 보험료수익의 증가폭을 웃돌면서 보험손익은 1조87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손해율도 다시 악화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1.0%로 전년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보험료를 올려도 지급보험금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특히 3세대와 4세대 실손 손해율은 각각 120.3%, 115.1%로 100%를 크게 웃돌았다. 새 상품이 앞으로 들어오는 계약의 구조를 바꾸더라도, 당장 손보사 손익을 누르는 부담은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비급여 보험금 증가도 여전히 핵심 부담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17조원 가운데 급여는 7조3000억원, 비급여는 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절반을 넘는 구조다. 근골격계 질환, 통원 비급여주사제, 로봇수술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보험금이 크게 늘면서 실손보험의 손익 악화를 키웠다.

◆ 11월 전환 제도 분수령

5세대 실손은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상품이다. 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보장을 합리화해 소비자의 의료 이용 부담과 가격 인식을 높이는 방식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과잉 진료와 과다 청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손보사 입장에서 관건은 신규 판매보다 기존 계약의 전환이다. 기존 1~4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옮겨오지 않으면 고손해율 계약의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의료 이용량이 많거나 비급여 이

용 가능성이 큰 가입자는 보장 축소 우려 때문에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가 낮아져도 실제 계약이동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초기 실손 가입자는 기존 계약에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기존 계약을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환 유인이 커질 경우 손보사의 고손해율 계약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전환이 부진하면 실손보험 손익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은 신규 계약의 손해율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지만 기존 세대 실손의 손해율 부담을 바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11월 전환 할인 제도 이후 실제 계약이동이 얼마나 나타나지는 손보사 실손 손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수출 늘고 환차익 기대... 달러예금 증가세

5대은행, 달러예금 650억 달러
이달 6영업일 만에 19억 달러 늘어
수급 불균형에 환율상승 압력 우려

최근 증가세가 주춤하던 시중은행 달러예금이 6영업일 만에 19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예금이 빠르게 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지만 기업들이 환차익 기대에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

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예금잔액(개인, 기업, 기관포함)은 600억 달러로 전월 말 보다 19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환율 불확실성이 커지며 달러 예금 잔액이 600억 달러를 밑돌았는데, 4월부터 증가세다.

달러 예금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기업들이 확보한 달러 규모도 커졌다.



아울러 향후 환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해 보유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대신 달러예금으로 보유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수입기업의 경우 향후 원자재 및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해 달러를 미리 확보해 예금으로 보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출기업 역시 환율이 더 오를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달러 매도를 늦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달러 보유 확대가 외환시장 내 달러 공급을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출기업이 벌

어들은 달러를 시장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지만, 이를 예금으로 묶어둘 경우 시장에 풀리는 달러 물량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수입기업의 달러 확보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달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도 환율 변동성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최근 외환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원·달러 환율 동향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했다. 다만 최근 환율 상승은 기업들의 달러 보유 확대와 글로벌 달러 강제 등 시장 요인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달러 예금 증가는 은행이 외화를 공격적으로 유치한 결과라기보다 기업들이 환율 상승에 대비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며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달러 보유 수요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노량진·장위 '뉴타운'... 공급절벽에 단비

이달 중 노량진 2구역 청약 진행
'장위 푸르지오 마크윈' 이달 분양

서울에서 노후 주거지를 대규모로 개발한 뉴타운 지역의 분양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공급절벽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의 분양이 본격화된 가운데 성북구 장위뉴타운은 막바지 분양을 남겨두고 있다.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노량진뉴타운은 6구역(라클라체자이드파인)과 8구역(아크로 리버스카이)에 이어 2구역(드파인 아르티아)도 이달 중 청약을 진행한다.

노량진뉴타운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핵심지로 현재 8개 구역에 약 9000세대 규모의 주택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드파인 아르티아는 노량진동 일대에 들어서며, 전용 59~109㎡ 총 404세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71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이며, 지하철 1·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SK에코플랜트가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으로는 한강이남에서 단독으로 시공하는 첫 단지다. 45층 초고층 설계에 따라 상층부 대부분 세대

에서는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하다.

노량진뉴타운은 4구역도 분양을 준비 중인 가운데 남은 1, 3, 5, 7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단계다.

동작구 후석뉴타운과 성북구 장위뉴타운은 마무리 단계다.

장위뉴타운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 중으로 10구역에서 '장위 푸르지오 마크윈'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35층 23개동 전용 39~114㎡ 총 1931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1032세대가 일반분양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 최대 규모다.

장위뉴타운은 15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 3만2000여 세대를 품은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화재보험협회 19대 이사장에 김기환 선임

KB손보 대표 거친 금융·보험 전문가

화재보험협회 제19대 이사장에 김기환 전 KB손해보험 대표이사(사진)가 확정됐다. 김 선임 이사장은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총괄과 재무총괄, KB손해보험 대표를 거친 금융·보험권 경영 전문가다.

9일 화재보험협회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단독 추천한 김기환 전 대표를 제19대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선임 이사장의 취임식은 오는 22일 열린다. 김 선임 이사장은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선임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KB국민은행 공채로 금융권에 입문했다.

이후 KB국민은행 소비보호그룹 상무,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총괄 전무(CRO), KB금융지주 재무총괄 전무·부사장(CFO)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는 3년간 KB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맡았다.

화재보험협회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손해보험 산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김 선임 이사장은 금융지주와 손해보험사를 거친 리스크관리·재무·보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를 이끌게 됐다.

/김주형 기자

하나카드,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 1조 돌파

올 들어 4개월 만의 성과... 업계 1위 카드사 8곳 누적이용액의 45% 차지

하나카드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이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트래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해외 결제 특화카드가 흥행하면서, 코로나19 인데믹 시절인 지난 2023년 이후 최단기간 1조원 달성이다.

9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하나카드의 직불·체크카드 해외 누적 이용액(개인)은 1조9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8379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약 2522억원 증가했다.

최단기간 1조원 돌파다. 해외 체크카드 누적 이용액이 1조원을 넘어선 시점은 2023년 12월 말, 2024년 6월 말, 2025년 5월 말이다. 올해는 여행 비수기로 꼽히는 4월 말 1조원을 넘어서며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다.

시장 점유율도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 해외 체크카드 누적 이용액 시장에서 하나카드 차지하는 점유

율은 45.37%다. 사실상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트래블로그를 비롯한 해외 결제 특화카드가 흥행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다.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 자동현금출기(ATM) 인출 수수료 면제,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북미, 일본 여행 맞춤형으로 설계된 후속 상품 '트레블로그 체크카드'도 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거주자의 전체 해외 사용 금액은 61억달러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0.1%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말 사상 최대치였던 61억1000만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체크카드 해외 결제가 전체 사용액 증가를 이끌었다. 신용카드는 전 분기 대비 1.3% 줄어든 반면, 체크카드는 2.4% 증가했다. 전년 동기 체크카드 사용액이 -0.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흐름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G그룹,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기업가치 정상화”

계열사 중장기 밸류업 로드맵 발표
향후 5년간 순이익 50% 주주환원
과재선 회장 “과소평가 바로잡을 것”

KG그룹이 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과 상장 계열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밸류업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향후 5년간 상장 계열사 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시장과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KG그룹은 9일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케이카 인수를 축으로 제조·유통·금융을 연결하는 통합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장 계열사 중장기 밸류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재선 KG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 및 CFO는 물론 ‘참여이사’들까지 함께 참석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끌었다.

과재선 회장은 “그룹의 실적과 재무 건



과재선 KG그룹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열린 ‘KG그룹 기업가치 정상화 및 미래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미래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전성에 비해 시장에서 현저히 평가절하됐다는 평가가 많다”며 “명확한 수치에 기반한 중장기 성장을 가시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G그룹은 현재 그룹 계열사들의 시장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가치 정상화’를 그룹의 최

우선 경영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장 계열사는 ▲ 선제적 배당을 통해 5년간 총주주환원율 50% 확대 ▲ 자사주 정책 강화를 포함한 예측 가능한 주주 친화 정책 명문화 ▲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 ▲ 시장 친화적 사시 IR 활동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내용인 케이카 인수 이후의 모빌리티 전략도 구체화됐다. KG그룹은 국내 최대 중고차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보유한 케이카 인수 후 자동차 계열사 KG모빌리티(KGM) 및 결제 및 핀테크 그룹사 KG이니시스, KG파이낸셜과 역량을 하나로 결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차 제조부터 중고차 유통, 자동차 금융, 결제에 이르기까지 고객 생애주기 전반을 관통하는 국내 유일의 ‘독점적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과 회장은 “자동차는 신차 한대가 팔리면 끝나지만 중고차는 두 번, 세 번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세배 가량 규모가 클 것”이라며 “케이카를 단순한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매매와 판매, 금융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키워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KG그룹은 핵심 사업군인 모빌리티, 철강, 화학, 금융 등 6대 핵심 사업군의 구체

적 투자 규모와 중장기 성장 로드맵도 발표했다.

KG케미칼은 동남아 등 해외 비료 사업 확대 및 울산 친환경 에너지 저장 인프라 구축을, KG에코솔루션은 울산공장 설비2~4배 증설 등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KGM은 해외 반제품 조립(KD) 시장 확대와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 KG이니시스는 일본 이커머스 시장 진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B2B 선정산사업’을 시작한다. KG스틸은 고부가 철강 제품 확대, 친환경 공정 구축에 더해 인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 회장은 “기업가치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결국 실적과 주주들과의 소통으로 평가받는 것”이라며 “위기의 기업들을 살려내며 견고하게 성장해 온 KG의 DNA를 바탕으로 시장의 과소평가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LG엔솔, 美 ESS 공급 확대... 수익성 개선 속도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 회복
증권, 2분기 흑자전환 예상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전력망·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 확대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 회복을 바탕으로 생산라인 가동률과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207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156억원으로, 북미 ESS 출하 확대와 유럽 전기차 배터리 물량 회복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하며 북미 수요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북미 ESS 생산능력을 50GWh 이상으로 확대해 현지 전력망과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전력기업 DTE에너지와 6GWh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 기간은 약 2년이며 계약 규모는 16억달러(약 2조4000억원) 수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알려졌다. 앞서 한화큐셀 미국법인과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5GWh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실제 출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 ESS 출하량은 5.3GWh로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했다. 글로벌 ESS 시장 성장률 78%를 크게 웃돈 수치다. 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1.4%에서 올해 1분기 2.7%로 상승했다.

비용 부담 완화 요인도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일부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도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약 3000억원 규모의 환급을 신청했

으며 현재까지 1000억원 인콰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유럽 출하 회복이 더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전기차배터리 탑재량이 올해 3월 전년 동기 대비 33%, 4월 25%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내 테슬라 판매가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물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했던 유럽 전기차량 고전압 미드니컬 배터리 판매 재개도 주목된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면서 성능과 원가를 함께 고려한 배터리 제품군 수요가 다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하며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북미 ESS 수주 물량 공급과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 회복이 이어질 경우 생산라인 가동률과 수익성 개선 효과도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조선업계, 5월 선박수주 199만 CGT... 中 점유율 격차 3%p

(표준선환산톤수)

척당 평균수주 규모 중 2배 웃돌아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 5월 글로벌 선박 수주 시장에서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를 3%포인트까지 좁혔다. 척당 평균 수주 규모도 중국의 2배를 웃돌며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9일 영국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5월 글로벌 선박 수주량은 452만CGT(표준선환산톤수·147척)로 집계됐다. 전월 818만CGT보다

45%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237만CGT와 비교하면 91%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11만CGT(97척)를 수주해 점유율 47%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99만CGT(34척)를 기록하며 4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척당 평균 수주 규모는 한국이 5만9000CGT, 중국이 2만2000CGT로 한국이 더 높았다.

지난 1~5월 누적 글로벌 수주량은 3356만CGT(1108척)로, 전년 동기 2066만CGT(863척)보다 62%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은 2298만CGT(816척)로 68%의 점유

율을 기록했고, 한국은 708만CGT(168척)로 21%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중국 103%, 한국 84%였다.

5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2억20만CGT로 전월보다 379만CGT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억2943만CGT로 65%를 차지했고, 한국은 3706만CGT로 19%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중국은 317만CGT, 한국은 14만CGT 늘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한국은 116만CGT, 중국은 2552만CGT 늘어난 수치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화큐셀, 탠덤 셀 기반 태양광 기술 고도화

우주태양광 실증 프로젝트 참여

한화큐셀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셀을 앞세워 차세대 태양광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우주태양광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 표면에서 우주 환경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세계 최초 탠덤 모듈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인증을 통해 지상용 제품화 기반도 강화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독일법인이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가 참여하는 SSTE-1 우주 과학기술 실증 프로젝트 파트너로 참여해 탠덤 셀 샘플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SSTE-1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이시스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하는 우주기술 실증 프로그램이다.

조지아공대 산하 비영리 응용연구기관인 GTRI는 우주 환경에서 태양광 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한화큐셀의 탠덤 셀을 실증 제품으로 선정했다. GTRI는 달 탐사선 표면에 탠덤 셀 샘플을 설치해 진공, 극심한 온도 변화, 자외선, 우주방사선 등 지상과 다른 환경에서 실증 데이터

를 확보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이번 실증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탠덤 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우주태양광 기술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실증에는 한화큐셀 독일 탈하이 R&D센터가 독자 기술로 제작한 탠덤 셀이 사용된다.

탠덤 셀은 기존 우주용 태양전지 수준의 발전 효율을 구현하면서도 동일 용량 기준 중량을 낮출 수 있어 발사·운용 측면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한화큐셀은 2029년 지상용 탠덤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우주태양광 분야로의 기술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박승덕 한화큐셀 대표는 “우주태양광은 지상 태양광의 한계를 넘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이자 AI 데이터센터, 방산, 통신 등 핵심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지닌 플랫폼 산업”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가능성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KAI, AI·DX 기반 국방 솔루션 선배

11일까지 ‘국방산업발전대전’ 참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무인 복합체계(MUM-T)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군수지원 기술을 앞세워 미래 항공전력 운용 개념을 제시한다.

KAI는 오는 1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에 참가해 MUM-T와 AI·디지털전환(DX) 기반 국방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AI 기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 회전익 무인자율전투체계(ROMACS), 지원장비체계를 공개하며 미래 항공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강조한다.

전시장에는 KF-21과 KAI가 자체 개발 중인 전투기 협업 다목적 무인기 MUCCA·SUCA를 연동한 NACS 모형이 전시된다. 소형무장헬기(LAH)에 MUM-T 개념을 적용한 전시 모형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미래 공중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MUM-T 운용 개념과 AI 기반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시각화한다. 종합군수지원(I PS) 존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형 정비예측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교범 등 미래 군수지원 솔루션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에는 미래 국방 기술 트렌드와 민·군 협력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에도 참여해 산·학·연·군 간 기술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소상공인 2면

“더는 못 버틴다”... 3000명 국회 앞서 생존권 사수 외쳤다

소공연·전상연 등 4개 단체 참여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결의대회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중단 요구 주휴수당 폐지·최저임금 구분적용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요구 宋 “양극화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

3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못버틴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지역업자총연합회, 한국의식업중앙회와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 ▲낮은 유산인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소공연

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6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입대료와 대출

이자 숨통을 죄어오고 치솟는 공공요금과 원·부자재비, 플랫폼 수수료와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늘어나는 빚더미와 절망뿐”이라며 “회업을 무기로 전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배부른 대기업 노조의 투쟁을 보며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소상공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

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산이다.

송 회장은 “정 그 돈을 주고 싶다면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며 “소상공인에게도 지불 여력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 저지 의사를 전했다. 업계는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즉각적인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찬성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반대 운동에 나설 뜻도 밝혔다.

송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반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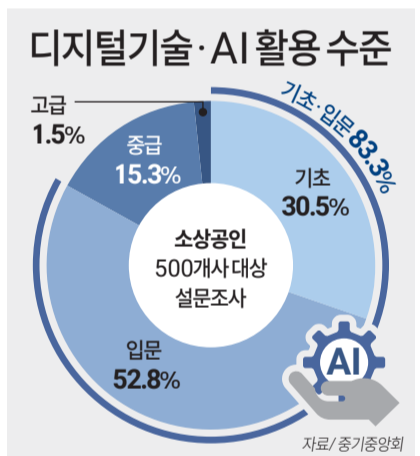


10곳 중 8곳 디지털·AI 활용... 역량은 아직 ‘초기 단계’

중기중앙회, 500곳 DX·AX 조사 83.3%는 입문·기초 단계 머물러 경영지원·고객응대 분야 활용 많아

소상공인 10곳 중 8곳은 디지털 기술·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중급’ 이상 단계는 10곳 중 2곳에 그치는 등 활용 수준이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기술·AI 활용을 위해 운영 비용 지원, 초기 비용 지원 등을 가장 원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DX·AX 현황 및 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해 9



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AI 활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80%가 ‘활용 중’이라고 답했다. ‘미활용’은 19.6%, ‘활용 중단’은 0.4%였다. 이는 문서 작성, 키오스크, 배달앱 등 일상적인 디지털 기술까지 포함한 수치다. ‘디지털 기술·AI 활용 수준’은 ‘입문 단계’가 52.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초 단계’ (30.5%), ‘중급 단계’ (15.3%), ‘고급 단계’ (1.5%) 순으로 많았다. 응답 소상공인 중 83.3%가 활용 초기 단계여서 디지털 활용 역량 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분야(복수 응답)는 ▲경영지원(54.5%) ▲고객응대(31.8%) ▲판매·유통(22.3%) ▲마케팅·

홍보(21.3%) 등으로 파악됐다.

또 분야별 주요 활용 기술(//)을 살펴보면 경영지원은 ‘디지털 POS 시스템’ (68.3%), 고객 응대는 ‘AI 통화비서 및 챗봇’ (66.9%)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 판매·유통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51.1%), 마케팅·홍보는 ‘SNS 채널 운영’ (52.9%)이 대표적이었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의 69.8%는 ‘시간 단축 및 효율화’를, 25.5%는 ‘홍보 효과로 인한 매출 증대’를 경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감소’ (11.0%), ‘고객 만족도 향상’ (8.5%) 등의

효과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디지털 기술·AI 지원 정책은 ▲운영 비용 지원 (59%) ▲초기 비용 지원(35.8%) ▲맞춤형 교육(16.6%) ▲컨설팅 지원(14%) 순으로 나타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비율은 높지만 아직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매장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모두의 창업’ 1기 선발... AI·로컬 아이템 눈길 소상공인·예비창업자 기술교육 지원

중기부, 창업인재 1기 발표 39세 이하 청년 68.4% 차지 일반·기술 4000명, 로컬 1000명 창업자금 2000만원·멘토링 제공

‘13세에서 78세까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창업인재 1기 5000명이 최종 확정됐다. 일반·기술 트랙 4000명, 로컬 트랙 1000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발표한 선발 결과에 따르면 5000명 중 39세 이하 청년이 68.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기술 트랙 최연소 선정자인 김태인(13) 학생은 학교 사각지대에서 반복되는 학교폭력을 와이파이 신호만으로 감지하는 안전 시스템’을 제안했다.

78세의 최연장 선정자는 ‘음식물 쓰레기 탄화체를 활용한 친환경 나프타 제조 기술’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외국인 선정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시험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원고지 연습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선발됐다.

로컬 트랙의 17세 최연소 선정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를, 72세 최연장 선정자는 ‘경북 못난이사과 업사이클(재활용)에 기반한 물 없이 녹는 K-사과 에너지 분말스틱 개발’을 각각 제안했다. 외국인 선정자는 일본인 창업자의 시기로 일본인 관광객 대상 부산 여행 정보 플랫폼 개발’로 첫 관문을 넘었다.

전체 선정자 중 지역 인원은 74%로 집계됐다. 트랙별로는 일반·기술 트랙 70%, 로컬 트랙 90%의 지역 도전자가 뽑혔다.

일반·기술 트랙은 IT 분야가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라이프스타일(17.8%), 바이오·의료(10.1%), 교육(6.8%)이 뒤를 이었다. 로컬 트랙은 생활(48.2%), F&B(37.3%), 뷰티(9.3%) 순이었다. 일반·기술 트랙 선정 아이템 중 AI 키워드가 포함된 아이템은 29.3%로, 전 산업 분야의 AI 확산을 실감케 했다.

선정된 5000명 전원에게는 창업활동을 위한 창업활동자금 2000만원과 창업 초기 멘토링 및 AI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1기

에 선정되지 못한 5만8000여명의 도전자에게는 아이디어 심사를 담당한 멘토들의 평가 의견과 온·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은 오는 22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주말 포함 총 40회 운영된다. 온라인 재도전 멘토링은 도전자들이 원하는 멘토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3회 진행된다. 신청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 참가자와 기존 신청서 대비 아이디어를 보완한 도전자에게는 내달 초 개시될 2기 선정평가 시점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에 선정된 5000명의 아이디어가 날개를 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선정되지 못한 5만8000명의 도전자들에게도 체계적인 재도전 지원을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창업 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업종전문기술교육 모집 120개 기관 연계 4000명 교육 온라인 과정 신설·국비 90%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업종전문 기술교육’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9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24누리집’에서 접수받는 업종전문기술교육은 급변하는 내수 시장과 트렌드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수요자 선택형 교육 배우처’ 프로그램이다.

이·미용, 외식업, 공예·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 120개 민간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올해 총 4000명(건) 내외의 소상공인에게 고품질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교육생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업종별 기초 실습 중심의 ‘기초 과정’ ▲업종 특화 기술 및 신기술을 접목하는 ‘심화 과정’ ▲기술 고도화와 인증·특허 취득을 돕는 ‘특화 과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교육과정별로 20~60시간 내외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비는 국비(90%)와 자부담(10%)을 포함하여 회당 20만~6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단, 기초교육은 자부담 면제다.

특히 올해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추가해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지원을 신설해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는 교육비 전액(100%)을 환급해 주는 등 혜택의 폭도 넓혔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거나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교육비 환급 신청 마감 이전 휴폐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은 교육비 환급이 제한된다.

김승호 기자

e-Topia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kec.kea.kr

SETIC 2026

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2026. 6. 24(수) - 26(금)

호텔 농심 (부산시 동래구)

멈추지 않는 **기술**,
확장되는 에너지의 **물결**



KT, 콘텐츠 사업 순항... '밀리서재' 중심 수익성 개선

지난해 지니뮤직 영업이익 32.6% ↑
이동통신·IPTV 결합상품 '강점'
경쟁사 제휴로 고객 점점 확대
독서 전 과정에 AI 접목으로 개인화

KT의 콘텐츠 사업이 통신 인프라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자책 콘텐츠 계열사 밀리의서재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9월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지니뮤직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2025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2억원으로 전년 대비 32.6% 늘어난 것.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4.0%에서 5.3%로 상승했다. 특히 밀리의서재를 포함한 도서 콘텐츠 부문 영업이익이 130억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도서 콘텐츠 부문 매출도 8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KT의 통신 인프라와 결합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강점으로 꼽힌다. 이동통신과 IPTV 가입자를 대상으로 음악·도서 콘텐츠를 결합상품이나 멤버십 혜택으로 제공하면 독립 플랫폼보다



KT의 콘텐츠 사업이 통신 인프라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고객 확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콘텐츠 구독도 이어지도록 해 장기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지니뮤직이 오랜 기간 축적한 음악 이용 데이터와 KT의 가입자 기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최근에는 KT 가입자를 넘어 경쟁사 고객으로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밀리의서재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한 데 이어 지난 4월 SK텔레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로써 통신 3사의 요금제와 멤버십을 활용한 가입자 유입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정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전부를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신사 입장에서요 요금제에 콘텐츠 혜택을 더해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AI를 독서 전 과정에 접목한 개인화 기술도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밀리의서

재는 지난해 대화형 독서 서비스 'AI 독파밍'을 선보였다. 이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도서를 검색하고 본문을 발췌·요약하며,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질문에도 답하는 자체 개발 서비스다. 최근에는 경제 전망서와 인문·사회 분야 전문서적처럼 분량이 많은 책을 효율적으로 읽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단순히 전자책을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이용자의 독서 이해도와 편

의성을 높여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밀리의서재는 지니뮤직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지니뮤직은 2021년 약 464억원을 투입해 밀리의서재를 인수한 뒤 코스닥 상장 이후 서영택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 지니뮤직은 현재 지분 38.7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밀리의서재가 안정적인 이익을 내면서 지니뮤직은 연결 실적 개선뿐 아니라 배당을 통한 현금 확보 효과도 누리고 있다. 콘텐츠 계열사 인수가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해외 확장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자책은 국가별로 출판권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언어권별 번역과 현지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통신사 가입자 기반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같은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수익 모델로 구현하려면 현지 콘텐츠 확보와 번역, 유통망 구축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조민선 기자

mjsjo@metroseoul.co.kr



metro

SKT, EU 지원 받아 양자암호 기술 개발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참여
차세대 양자키분배 구현·실증
소형화·AI로 안정성 유지 목표

SK텔레콤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3년간 양자암호 분야 연구를 지원받게 됐다. 양자키분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광학 장비를 소형화하고 이를 인공지능(AI)으로 자동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사용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SK텔레콤은 EU 연구기금 '호라이즌 유럽'의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아시아 민간기업으로 최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SK텔레콤은 차세대 'QPIC-AI' 기반의 양자키분배(QK

D) 시스템을 구현·실증이 목표다.

QKD 기술은 신호를 주고받는 양쪽에 서 양자 암호키를 만들어 나눠 갖는 방식으로, 보안 침해 시 양자의 상태가 달라져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현존하는 암호 체계 중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기술로 평가된다.

다만 QKD 장비가 크고 무거워 설치 시 많은 비용이 들고, 단일 광자 광원 등 정밀 과학 부품들을 각각 조립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해결책은 두 가지다. 여러 광학 장비를 광자집적회로(PIC)로 불리는 작은 반도체 칩에 넣어 소형화하고, 이 장비에 AI를 탑재해 온도·진동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사람이 장비를 조절

하지 않아도 통신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이후 반도체 공정을 통한 대량 생산으로 제품 단가와 전력 소비를 낮춰 비용을 절감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방·금융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된 QKD 기술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는 그리스 국립과학연구소(NCSR), 오스트리아 기술연구원(AIT), 독일 반도체 스타트업 시노 게이트UG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연구 총괄 및 QKD 광학계 제어용 AI 개발, 키 관리 시스템 개발, AI 기능 로직 설계 등을 맡아 수행한다.

/조민선 기자

KT, 월드컵 관람 지역 네트워크 특별점검

광화문, 시청 광장, 강남 영동대로 등
대규모 인파 집결 지역 중심 진행

KT는 월드컵 관람 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시청 광장, 강남 영동대로 일대 등 대규모 인파가 집결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KT는 이번 행사를 대비해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준비했다. 특히 KT는 대응 체계에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W-SDN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중앙에서 실시간 트래픽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부하 위험이 있는 기지국을 자동으로 선정 및 관리한다. 인파 밀집도와 서비스 사용량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네



KT 직원들이 8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첫 경기 응원을 앞두고 통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KT

트워크 자원 재배치로 대형 행사에서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이동기지국을 사전에 추가 배치하고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에서 응원 일정 전후로 24시간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즉각적으로 상황을 복구할 수 있는 인력도 준비했다.

/조민선 기자

LG U+ "AI로 나만의 콘텐츠 만들어보세요"

'유쓰 쇼츠 페스티벌' 열리

LG유플러스는 고객 참여형 영상 공모전 '유쓰 쇼츠 페스티벌' 2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담고 싶은 이야기를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AI를 활용한 나다움 표현'이다. 응모 부문은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 일상 속 이야기를 담은 '심플리' 부문과 AI 기반 음성과 사운드를 활용해 쇼츠 콘텐츠를 제작하는 '아트'로 나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제작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영상에는 반드시 'AI로 제작한 영상'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 필수 해시태그는 LG유플러스, 유튜브, 유쓰A 쇼츠페스티벌, 유쇼, 보이오AI 등 5개다. 연령·통신사와 무관하며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는 메가MGC커피아메리카노 쿠폰 1장을 증정한다.

참가자들은 AI 쇼츠 제작 방법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영상 제작에 활용하는 프롬프트와 가이드도 마련했다. 또 구글 AI 프로와 나노바나 등 최신 AI를 할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권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구글 AI 프로와 도미노 피자 패키지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대상 수상자 등 11명에게는 미국 LA에 있는 AI 박물관 '데이터 랜드' 견학, 구글 미국 오피스 AI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수상작은 모두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에 전시된다. 우수상(6명)·장려상(10명) 수상자에게는 상금 40~20만원이 각각 제공된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LG유플러스와 구글이 공동 발급



LG유플러스 모델이 유쓰 쇼츠 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하는 수료증도 수여한다. 수상 결과는 8월 중 발표한다.

LG유플러스의 장준영 마케팅그룹장(상무)은 "유쓰 쇼츠 페스티벌은 Z세대 고객들이 새로운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AI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활용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메타빌드,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로부터 2개 사업 수주

메타빌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분야 2개 사업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메타빌드가 수주한 사업은 '복지행정 AI안내도움미 사업', '복지 지역특화 AX-스프린트 응용제품 상용화 사업' 등 2건이다.

메타빌드는 복지행정 검색 증강 생성(RAG)과 AI 에이전트를 연결하고 복지대국민 AI 서비스와 지역특화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복지급여 서비스와 전주기 AI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지행정 AX 플랫폼'을 제공한다.

복지행정 AI안내도움미 사업을 통해 복지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연계를 기반으로 대국민 복지서비스 신청 이후 진행 상황과 제출서류 검증, 자격 선정 등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복지 지역특화 AX-스프린트 응용제품 상용화 사업'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완성도가 높은 AI 응용제품의 신속한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복지시설 등에 흩어져 있는 복지제도와 지역 특화사업 정보를 통합해 RAG로 구축한다.

또한 웹 기반 챗봇, 모바일, 상용 메신저, AI스피커, 키오스크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 가능한 구조를 적용해 고품질,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중심의 복지 안내 체계를 마련한다.

/조민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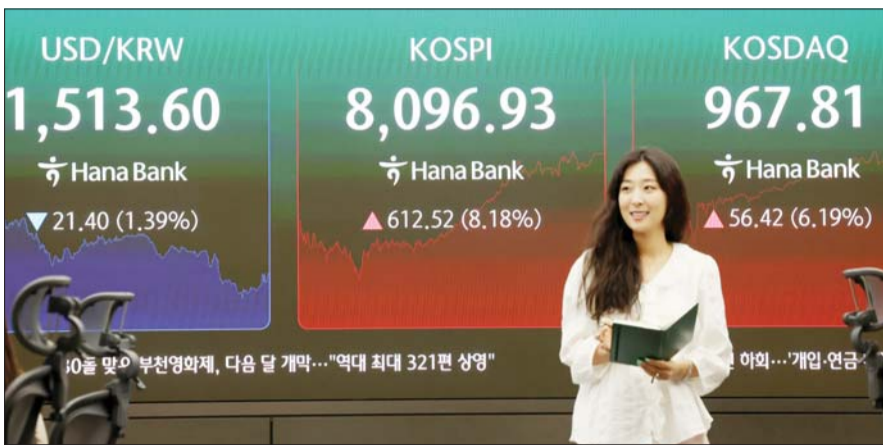
역대급 상승에 8000피 회복했지만... 공포지수는 사상 최고

공포지수 장중 91.23까지 치솟아 시장 과열·경계 심리 '동시 존재' 전문가 "빛투 줄이고 신중히 대응"

-5.54%, -8.29%, +8.18%. 최근 3거래일 코스피 등락률이다.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를 오르내리며 극심한 변동성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이례적인 상황도 펼쳐진다. 보통 하락장에서 출현하는 변동성지수(VKOSPI)가 하락·상승장을 가리지 않고 치솟고 있다. 하락과 변동성이 큰 장을 예고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하락 신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볼라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급증하며 '빛투'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데다, 공매도 선행지표로 꼽히는 대차거래 잔고가 늘고 있어서다.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 기록, '공포지수'도 최대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612.52포인트(8.18%) 오른 8096.93으로 마감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코스피가 전 거래일(7484.41)보다 612.52포인트(8.18%) 오른 8096.93에 장을 마감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11.39)보다 56.42포인트(6.19%) 상승한 967.81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35.0원)보다 22.9원 내린 1512.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대비 8.97% 오른 3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5.91% 급등한 221만 5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SK하이닉스 상승률은 역대 최대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한국형 공포 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91.23으로, 전 거래일보다 14.60포인트(19.05%) 급등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직후 기록한 올해 전고점(83.58·3월 5일)보다도 높은 것이며, 거

래소가 해당 지수의 공식 발표를 시작한 2009년 4월 13일 이후 사상 최고치다. 지수가 공식 발표되기 이전부터 수집된 VKOSPI 데이터를 보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11월 이후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옵션 시장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30일간의 지수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다. 통상 하락장에서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포 지수'라고 불린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 지수(VIX)가 S&P 500 지수 옵션을 근간으로 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보통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을 때 이러한 변동성 지수들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통상 20~30 수준을 안정 구간, 50을 넘어가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김지현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시적 효과라고 해도 반도체 고밸류에이션 부담, 유가와 중간재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누적된 상황인 만큼 6~7월은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IMF·팬데믹 수준의 공포...시장 피로도 '극한' 증시

공포 지수의 상승은 코스피 옵션 시장에 참여하는 전문적인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코스피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는 코스피 상승을 예상하고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사들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지수가 하락할 때 돈을 버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하루에도 코스피가 급등락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5일까지 코스피 일간 평균 변동률(코스피 지수의 일간 고가와 저가 변동 폭)은 3.9%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3.7%) 수준보다 높은 수치다. 최근 20거래일(5월 4일~6월 2일) 평균 4.2%에 달해 연초 평균(3.0%)을 훌쩍 뛰어넘었고,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5일 하루 변동률은 4%까지 치솟았다.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지금은 투자자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코스피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 다음 등락만 반복하는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빛투 증가와 공매도 확대, 변동성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시장 과열과 함께 경계 심리도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한다. 지난 8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7조7904억원으로 역대 세번째로 많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 대매매금액도 1391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공매도 선행 지표인 대차거래 잔고는 8일 기준 166조1273억원에 달한다. /신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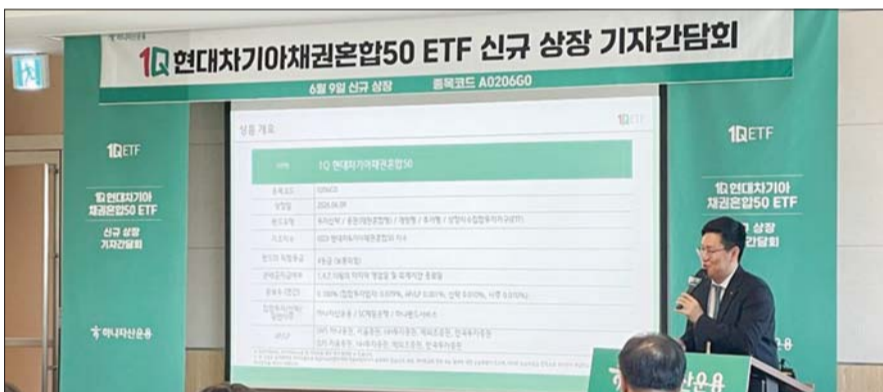
godhe@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기아에 채권 더했다... 하나운용 ETF 상장

주식의 성장성·채권의 안정성 결합 DC형 퇴직연금·IRP 계좌 투자 가능

하나자산운용이 현대차와 기아의 성장성에 채권의 안정성을 결합한 채권혼합형 ETF를 선보이며 피지컬AI 투자 수요 공략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톤다이나믹스를 중심으로 로봇틱스와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를 넘어 피지컬AI 시대의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나자산운용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Q 현대차기아채권혼합50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밝혔다. 이 ETF는 현대차와 기아를 각각 25%씩 편입하고 나머지 50%를 단기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퇴직연금 감축규정을 반영한 2세대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돼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최대 100% 편입이 가능하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AI 다음 단계인 피지컬AI 시대가 빠르게 현실화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퀀트솔루션본부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Q 현대차기아채권혼합50 ETF 신규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보스톤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로봇틱스 경쟁력과 실제 양산 체계를 동시에 갖춘 글로벌 피지컬AI 선도 기업"이라고 말했다.

상품 설명에 나선 김승현 ETF·퀀트솔루션본부장은 전날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을 방문한 잰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언급하며 "AI의 다음 물결은 모빌리티와 피지컬AI이며 지금이 현대차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자산운용은 특히 퇴직연금 시장에

서의 활용성에 주목했다. 현행 제도상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지만 채권혼합형 ETF는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주식 노출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70%를 일반 주식형 ETF로 채우고 남은 자금으로 현대차·기아 비중을 확대하려는 투자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주식형 ETF와 병행하면 전체 주식 노출도를 최대 85%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증권 자동차담당 애널리스트인 장문수 연구위원도 참석해 현대차그룹의 피지컬AI 경쟁력을 설명했다.

그는 "현대차는 단순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제조와 로봇틱스를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스톤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해서 현대차그룹의 대량 생산 능력과 제조 데이터가 강점이라고 진단했다. 장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연간 800만대 이상의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 로봇 양산과 학습에 필요한 제조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피지컬AI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들이 현대차 관련 ETF를 잇달아 출시하는 상황에서 하나자산운용은 차별화 포인트로 '연금 투자자 맞춤형 솔루션'을 내세웠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순자산 45억 있어야 60대 '1%' 자산가

NH 100세시대연구소 리포트

60대 이상 가구가 자산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 44억9000만원의 순자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가구 유형별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자산 구조와 소득 특성을 분석한 'THE 100리포트 125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연령, 거주지역, 직업군에 따른 상위 자산가의 특징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상위 1% 진입 기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게 상승했다. 39세 이하 가구의 경우 상위 1% 기준선은 13억1000만원이었지만 40대는 32억원, 50대는 34억5000만원, 60대 이상은 44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가구의 평균 순자산도 39세 이하 20억9000만원, 40대 47억9000만원, 50대 56억7000만원, 60대 이상 78억3000만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했다.

젊은 고자산가들도 부동산 의존도가 높았다. 39세 이하 상위 1%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24억869만원으로, 이 가운데 거주 주택이 11억1779만원, 거주 외 부동산이 7억5072만원을 차지했다. 전체 자산의 약 78%가 부동산으로 구성됐으며 금융자산도 4억2174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지역에 따른 자산 격차도 뚜렷했다. 수도권 상위 1%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78억5000만원으로 비수도권 35억1000만원의 2.2배 수준이었다. 상위 1% 진입 기준 역시 수도권은 44억8000만원, 비수도권은 22억5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자산규모가 근로자를 크게 앞섰다. /허정윤 기자

스페이스X, MSCI 조기 편입 유력

나스닥·FTSE 러셀도 편입 길 열려

MSCI, 나스닥, FTSE 러셀 등 주요 지수 제공 업체들이 잇따라 스페이스X의 조기 편입 준비를 마치면서 나스닥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에 대한 패시브 펀드의 수요가 예상된다.

MSCI가 8일(현지시간) 글로벌 스탠더드 지수에 대형 기업공개(IPO) 종목을 조기 편입하는 기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의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 벤처마크다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의 운용 자산만 약 5조7900억달러(약 7952조원)에 달한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나스닥에 상장된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 1조7500억 달러(약 2403조원)를 목표로 삼고 있다.

상장 시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약 7%에 불과하지만, MSCI 지수 조기 편입을 위한 규모 및 유통 비율 기준은 무난히 충족

족할 것으로 로이터는 예상했다.

스페이스X의 최종 공모 규모는 11일 결정되고 다음날인 12일 나스닥 거래가 시작된다. MSCI는 거래 개시 후 10거래일 뒤 지수 편입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나스닥도 이미 규정을 개정해 스페이스X, 엔트롭틱 등 신규 상장 대형주의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을 쉽게 만들었다. 나스닥 100 지수는 애플·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술주 100개로 구성된 지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추종되는 지수 중 하나다.

지수 제공 업체인 FTSE 러셀도 신속 편입 규정을 통해 스페이스X의 러셀 지

수와 FTSE 지수 편입 자격을 부여했다.

수조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스페이스X가 편입되면 해당 펀드들의 자동 매수 수요가 유발된다.

반면 S&P 글로벌은 수익성 요건 등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조기 편입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미국 대형주 500개로 구성된 S&P 500 지수는 미국 증시의 실질적 기준 지수다. 편입 요건으로 최근 4분기 연속 흑자를 요구하는데, 스페이스X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신하은 기자

전 세계에 K-푸드 전파... '수출 200억달러' 시대 앞당긴다

'서울푸드 2026' 개막

KOTRA 주최, 오는 12일까지 운영 국내 최대·아시아 4대 식품 전시회 49개국·1800개사·3400개 부스 규모 美, 주빈국 자격으로 공식 참가 288개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회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푸드 2026'이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K-푸드 수출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서울푸드를 발판 삼아 농식품 수출 200억달러 시대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하는 '서울푸드 2026'이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1·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4회를 맞은 서울푸드는 국내



서울푸드 2025 현장 모습.

/서울푸드

최대이자 아시아 4대 식품산업 종합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K-푸드 수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온 이번 전시회에는 49개국 1800개 기업이 참가해 총 3400개 부스를 운영하며 식품산업 최신 트렌드와 미래 기술을 선보인다.

최근 K-푸드의 글로벌 인기는 수출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5월 기준 누적

수출액이 5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며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미국의 주빈국(Country of Honor) 참가다.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4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 측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 전시회 가운데 서울푸드에 유일하게 주빈국 자격으로 공식 참가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관에서는 육류와 견과류, 스낵류를 비롯해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식품 원료와 혁신 제품들이 소개된다.

서울푸드는 단순 전시회를 넘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878건의 상담을 통해 5억3618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46개국 288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가 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KOTRA는 약 5000건의 상담과 6

억5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목표로 국내 식품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에는 중국·베트남·대만 등 아시아 주요 시장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글로벌 커머스 데이'가 열렸으며, 10일에는 쿠팡과 그립(Grip)이 참여하는 특별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11~12일에는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참가 기업들의 국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K-푸드는 이제 단순한 식품 수출을 넘어 우리 산업 경쟁력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 시장에 전파하는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서울푸드가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K-푸드 수출 확대와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농협, 도농상생 무이자자금 3771억 마련

올해 총 8900억 자금 지원 예정 수급불안 등 경제사업 손실 보전 사업활성화·경쟁력 강화에도 활용

농협이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기금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는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목적의 '도농상생기금' 3771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는 총 11명으로, 도시농축협 조합장 8명과 관련부서장 3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5일 상생협력 위원회가 개최됐다.

도농상생기금은 도시농축협의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이어져 온 이 기금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올해는 이번에 지원하는 3771억원을 포



도시농축협 조합장 등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들.

함해 총 8900억원의 기금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농축협은 이번 지원받은 기금을 활용해 농축산물 수급불안, 가격 등락, 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제사업 손실 보전에 나선다. 또 농축산물 판매·유통의 사업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도 자금을 활용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병길 안양농협 조합장은 "전국의 도시 농축협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도농 상생을 위해 기금 출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도농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농상생기금을 지속 확대해 교류와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기대, '디지털 경제 직업훈련' 석사 신설

국제노동기구와 전문가 양성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손잡고 디지털 경제 시대를 이끌 글로벌 직업훈련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한국의 산업현장 연계형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모델과 디지털 혁신 역량을 세계 각국에 확산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기대는 ILO 산하 국제훈련센터(ITC ILO)와 공동으로 2027년 1월 디지털경제 직업기술교육훈련 석사과정(Master's Program in TVET for the Digital Economy)을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ITCILO가 자국 외 해외 고등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개설하는 첫 정규 학위과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국제대학인 한기대 교육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2027년 첫 입학생으로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총 30명의 국내외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위과정은 한기대 산업대학원 소속 1년 집중 석사학위 과정(총 30학점)으로 운영된다. 졸업생에게는 한기대 이학석사(Master of Science, M.Sc.) 학위가 수여되며, 학위증에는 ITCILO의 인증이 표기된다.

교육은 온라인 이론 학습, 한국 대면 교육, 캡스톤 프로젝트 등 3단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성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ITCILO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6월 말부터 8월까지 한기대 캠퍼스에서 6주간 집중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9월~12월까지는 각국의 직업훈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캡스톤 프로젝트나 실무형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AI)과 마신러닝을 단순한 이론 공부를 넘어 생성형 AI, AI 기반 학습 도구 등 실제 교육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대면 교육 기간에는 가상 실험실과 시뮬레이션 등 첨단 에듀테크를 직접 경험하고, 국내 직업훈련기관과 산업체 현장견학을

통해 한국형 교육모델을 배우게 된다.

교수진으로는 한기대 교수진을 비롯해 ITCILO·ILO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고용·노동 정책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해 실무 중심 교육을 이끈다. 양 기관은 동수로 구성된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한기대가 맡아 학사 운영과 한국 대면교육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직업훈련 교·강사, 교육·고용 분야 정책 담당자, 산업계 및 노사단체 관계자 등이며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한국은 산업현장과 교육을 긴밀히 연결해 인재를 양성해 온 직업능력개발 강국"이라며 "한국형 TVET 모델이 각국의 산업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노동 분야의 국제 지식 공유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석사과정은 전면 영어로 운영된다. 학생 모집은 6월 30일 1차 접수를 시작으로 2차(9월 28일), 최종(11월 30일) 마감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은 ITCILO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어촌 개발대상지 16곳 선정

신규 대상지에 태안·고창·삼척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력 목표

해양수산부가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권역 단위 거점개발 10개소와 ▲시·군 역량강화 지방정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개소는 충남 태안군 송현1리, 전북 고창군 삼원면, 전남 진도군 용동, 전남 완도군 청산동, 전남 신안군 자은·한운, 경남 통영시 신봉, 경북 영덕군 축산, 경남 거제시 가배, 제주 제주시 상명리, 제주 서귀포시 신봉·삼달이다.

시·군 역량강화 지방정부 6곳은 강원 삼척시, 전남 장흥군, 충남 태안군, 경남 거제시, 전북 부안군, 경남 남해군이다.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공모 접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지난 5월 서류 평가와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내실 있는 사업지를 엄선했다. 선정된 사업에는 유형에 따라 향후 5년간 맞춤형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인천 초·중고 학생 대상 골프 꿈나무 육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 운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익 골프대회 운영을 통한 인천지역 골프 꿈나무 지원·육성에 한창이다.

공사 주관의 '제3회 드림파크CC 사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가 지난 8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CC에서 개최됐다.

지역 골프 꿈나무 육성과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 대회에는, 인천광역시골프협회에 등록된 초·중·고 학생선수 115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드림파크CC 드림코스에서 진행됐고 18홀 최저타 경기(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운영됐다.

공사는 "특히 이번 대회에선 전국 단위 학생골프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대표선발·

해수부는 특히 각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 기반 시설과 소득 기반 시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월 관련 사업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해당 어촌 지역에 다목적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공동작업장·지역 음식판매장, 마을 경관 정비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사업들이 제안됐다.

이번에 선정된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개소에는 5년간 총 443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소득증대 시설 조성을 통해 어촌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군 역량강화로 선정된 지방정부 6곳에는 1년간 총 약 8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각 지방정부는 마을 컨설팅,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게 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 단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어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인천 서구 드림파크CC에서 열린 '제3회 드림파크CC 사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등에 활용되는 포인트가 부여되면서, 참가 선수들에게 의미 있는 경쟁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경기 직후엔 초등부·중등부·고등부 남녀 부문별 우승·준우승·3위와 종합 최우수상 시상식이 열렸다. 총 1000만원의 장학금과 트로피, 시상품 등이 수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 and 현지화 전략

2026년 6월 17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주제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 and 현지화 전략
 - 일시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등록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1만원)
 - 문의 2026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 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
| 참가등록 | 13:00 ~ 14:00 |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
| 개막식 | 14:00 ~ 14:10 | 〈축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
| 강연 | 14:10 ~ 14:40 | 박수영 해양수산부 수출공진흥과 사무관 : 2026 수산식품 수출전략 |
| | 14:40 ~ 15:10 | 강호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 :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
| | 15:10 ~ 15:40 |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팀장 : 증가,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 |
| | 15:40 ~ 16:10 |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 |
| | 16:10 ~ 16:40 | 안병익 식신 대표 : 식신 AI 데이터로 본 외국인이 찾는 K푸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BTS 공연 맞춰 부산도시철도 1시간 연장 운행

오는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교통공사, 특별수송대책 시행 1~4호선에서 총 220회 추가 운행 3호선 가용열차 20대 전부 투입 배차 간격 감축, 자전거 탑승 제한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가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에 맞춰 도시철도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

공사는 오는 12~13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인 부산' 공연에 대비해 영업 시간 연장 열차 증편 등 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연장에는 하루 약 5만 5000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 이틀간 부산도시철도 영업 시간은 1시간 연장된다.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3호선 종합운동장역 마치는 수영행이 이튿날 오전 1시 4분, 대저행이 1시 13분까지 운행한다. 1호선 연산역과 2호선 광안역 마차도 노선과 행선지별로 0시 36



부산교통공사.

분에서 1시 20분 사이까지 늘어난다.

열차는 1~4호선에서 모두 220회 추가 운행된다. 특히 3호선은 가용 열차 20대를 전부 투입하고 필요하면 빈 열차를 더 넣어 수송력을 끌어올린다. 이에 공연이 끝난 뒤 3호선 배차 간격은 기존 8~14분에서 4~6분으로 좁혀진다.

혼잡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연 기간 3호선에서는 자전거를 갖고 타는 것이 제한된다. 바뀐 운행 시각표는 공사 누리집과 부산도시철도 모바일앱, 각 역

사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 자원 인력 210명도 추가 배치된다. 이들은 종합운동장역과 연산역, 광안역 등 주요 역과 환승역에 집중 투입돼 승객 안내와 질서 유지 등을 맡는다. 역사 안에 인파가 갑자기 늘면 경찰과 함께 출입구 외부, 게이트, 승강장 순으로 단계별 진입 통제에 나선다.

종합운동장역에서는 모바일 승차권 신용 카드 간 결제 서비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된다. 역사에 놓인 단말기

의 QR 코드를 찍어 신용 카드로 요금을 내면 모바일 QR 승차권이 바로 발급되는 방식으로, 공사는 승차권 구매 대기 시간과 역사 혼잡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종합운동장역과 3호선 열차 내부는 BTS 팬덤인 아미(ARMY)가 꾸민 테마공간으로 조성, 관람객은 공연장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공연 분위기를 미리 느낄 수 있다. 공사는 공연 첫날인 12일 오후 연산역에 환승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퇴근 시간대 혼잡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5시 이전에 도시철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BTS 콘서트 관람을 위해 부산을 찾는 전 세계 아미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관람객들이 부산의 매력을 충분히 즐기고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수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국립부경대

KAI와 직무 멘토링 캠프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및 KB인재니움사에서 'KAI와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부울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 주관으로 국립부경대 등 5개 대학이 공동 운영했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 80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KAI 기업 소개 및 채용제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직렬별 현직자 직무 소개, 맞춤형 멘토링, 생산 시설 현장 견학, 기업 분석 골든벨, 경험·역량 발굴 워크숍, 입사 서류 작성 및 모의 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공공기관 예식장으로 부담 ↓

울산시는 작은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공공기관을 예식장으로 제공하는 결혼 지원사업의 '1호 부부'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운영한다. 예복과 머리(헤어)·화장(메이크업), 식장 꾸미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지원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하반기에도 가족 중심의 작은 결혼식을 계획하는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받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전남 갯벌, 유네스코 확대 등재 '청신호'

한국의 갯벌 2단계, IUCN 등재 권고 내달 세계유산위원회서 최종 결정

전남 갯벌은 우리나라 갯벌 세계유산의 핵심 축으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 신청에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전남 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아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최종 등재 결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 등재기준(X)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등재기준(X)은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에 부여되는 기준으로, 전남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확대 등재 신청은 2021년 등재된



무안갯벌.

/전남도

보성-순천-신안-고창-서천갯벌에 여수-고흥-무안-서산 갯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확대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탄도만 갯벌 ▲무안-함해만 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서산갯벌 등 6개 구성요소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탄도만 갯벌, 무안-함해만 갯벌, 3개 구성요소가 전남에 위치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도시공사, 데이터 해커톤 문제 출제

'DIVE 2026' 발제사로 참가 협력형 컨소시엄 구조 첫 도입

부산도시공사(이하공사)가부산에서 열리는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에 문제를 내는 발제사로 나선다.

공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제3회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 'DIVE 2026'에 발제사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취지로 마련됐다. DIVE(Data Insights and Visualization Event)는 부산시가 2024년 처음 선보인 자체 데이터 해커톤 브랜드로, 올해 세 번째를 맞는다.

/부산=이도식 기자

올해 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문제를 출제하는 '협력형 컨소시엄' 구조다. 이 방식은 이번에 처음 도입됐으며 참가자가 이론 학습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의 과제를 풀어 보도록 설계됐다.

발제사 컨소시엄은 모두 9개로 꾸려졌고, 부산도시공사는 데이터 전문 기업인 선도소프트와 짝을 이뤄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한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서비스 개발 과제를 낸다.

참가 대상은 국내외 대학생과 직장인, 일반인 등으로 제한이 없으며 2~4인인 팀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24일까지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 누리집에서 받는다.

박수현,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출범

(충남도지사 당선인)

민선 9기 도정 철학·방향 담아 8개 분과체제로 도민 중심 정책 마련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사진)이 민선 9기 충남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준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도정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박 당선인은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도정의 철학과 방향을 담은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의 주요 인선을 공개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도민께 약속드린 '새로운 시선, 담대한 설계'는 선거가 끝났다고 멈추는 구호가 아니다"라며 "이제 충남도정의 실제 설계로 이어져도 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인수위원회'라는 절차 중심 명칭 대신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 데 대해 "민선



9기 충남도정의 철학을 담아 도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이재관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명의 인수위원과 50여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획조정분과를 비롯해 AI수도충남분과, 건설도시분과 등 총 8개 분과 체제로 운영되며,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준비위원회는 단순한 인수 절차를 넘어 충남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남도, 수산물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

9개 시군·23개 전통시장서 진행 구매금액 30%... 최대 2만원 환급

경남도는 도내 9개 시군 2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14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구매 고객, 국산·원양산 원재료 70% 이상 단산 가공품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 반음식점(횡집 등) 구매, 정비비축 수산물 발송 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로 마련했다. 당초엔 설·추석 명절 기간에만 운영할 계획이었다.

참여 시장은 총 23곳이다. 시장별로는 ▲창원시 연합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마산가교수산시장, 기음정시장, 상남시장, 명서시장, 반송시장, 봉곡시장 ▲진주시 연합개개·중앙시장 ▲통영시 서호시장, 복신시장, 중앙시장 ▲김해시 삼방시장, 동상시장, 외동시장, 장유시장 ▲양산시 연합양산남부시장상가, 덕계종합상설시장 ▲거제시 고현시장, 옥포시장 ▲고성군 고성시장, 공통시장 ▲함양군 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 거창전통시장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포항시

오는 12일 '단오절 민속축제'

포항시는 오는 12일 민인당 옆 잔디구장에서 '2026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제30회 포항 단오절 민속축제'를 개최한다.

위대한 시민과 하나되어 행복한 미래를 여는 포항'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날 기념식과 단오절 민속축제로 나눠 진행된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9개 읍·면·동 민간기업장과 함께 시민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대형 전광판으로 관람하는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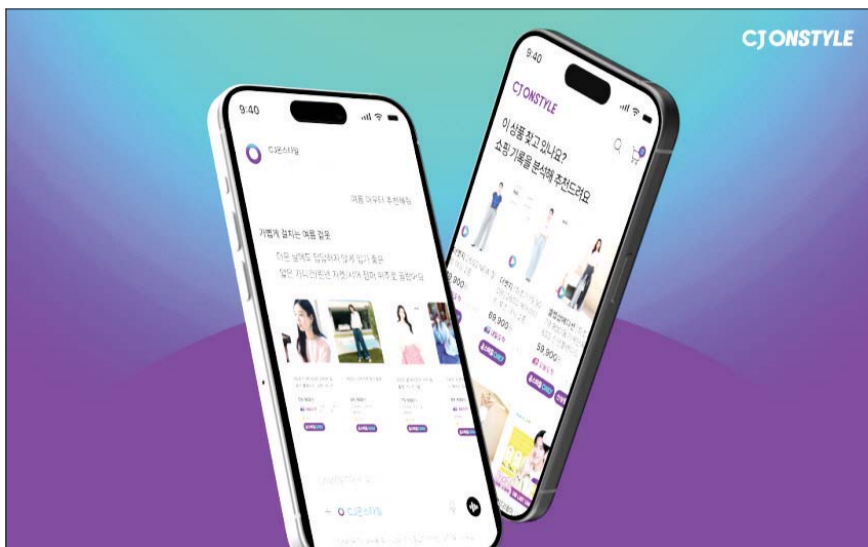
AI와 쇼핑하는 소비자... 유통·패션업계, 대화형 커머스 '새판'

무신사 챗GPT 내 전용 앱 서비스 CJ온스타일 60만개 상품 AI 최적화 롯데홈쇼핑 '원스톱 AI 쇼핑' 구현

“여름 원피스 추천해줘”, “10만원 이하 출근룩 골라줘.” 소비자들이 검색어 대신 대화로 쇼핑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유통·패션업계가 생성형 AI를 새로운 판매 채널로 육성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챗GPT 내 전용 앱을 출시하고 AI 최적화 전략을 강화하며 대화형 커머스 시장 선점에 나섰다.

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요 유통·패션 기업들은 생성형 AI 플랫폼 내 전용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고, AI 기반 상품 추천 및 검색 최적화 기술을 강화하며 새로운 쇼핑 접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신사는 챗GPT 내에 무신사 앱을 선보이고 서비스를 본격 출시했다. 사용자는 패션·뷰티 전문가와 대화하듯 시간·장소·상황(TPO), 날씨, 선호 가격대, 브랜드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스타일링을 제안받을 수 있다. 무신사가 자체 개발한 커머스 탐색 전문 인터페이스인 '무신사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적용해 단순한 상품 판매 운동을 넘어선 타



CJ온스타일 챗GPT 전용 앱 화면.

/CJ온스타일

색 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CJ온스타일 역시 대화형 AI 플랫폼을 통한 유입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1월 동기 대비 챗GPT·제미나이 등을 통한 앱·웹 유입량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AI 검색 결과에 자사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생성형엔진최적화(GEO) 전략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결과다. 지난 15일에는 챗GPT 내 전용 앱을 출시해 60만 개 상품에 대한 AI 최적화를 완료했고, 연내 10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과 LF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 롯데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챗GPT 전용 앱을 선보이며 방송 편성표 조회부터 상품 비교, 구매까지 가능한 '원스톱 AI 쇼핑'을 구현했다. LF 또한 패션 전문몰 최초로 챗GPT에 'LF몰' 앱을 출시하고, 검색에서 응답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브랜드 발견 방식에 맞춰 GEO 전략과 온드미더 콘텐츠 정보 구조 고도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데이터로도 증명되는 글로벌 쇼핑 여정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은 44.5%로 전년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으며, 생성형 AI 서비스 중 챗GPT 이용률이 68.1%로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마스터코드에 따르면 ChatGPT는 매일 25억 건의 검색 요청을 처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요 소매업체 유기적 트래픽의 25%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의 61%가 생성형 AI를 쇼핑에 활용하고 있으며, AI 인터페이스를 통한 구매는 기존 쇼핑 경로보다 전환율이 현저히 높고 구매 시간을 2~3배 단축시킨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키워드를 입력하는 '검색 중심 커머스'에서 맥락과 취향을 파악하는 '대화형 AI 기반 커머스'로의 전환이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쇼핑은 검색이 아니라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고 먼저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AI 기반 구조를 통해 고객의 취향과 상황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브랜드와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커머스 경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metroseoul.co.kr



신제품

코카콜라음료 몬스터 울트라 바이올렛

LG생활건강 자회사 코카콜라음료가 에너지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 신제품으로 '울트라 바이올렛(사진)'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은은한 시트러스와 달콤한 포도 향을 제로 슈거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포도 향을 갖췄고 355ml 캔 기준, 제로 슈거(무당)와 14kcal 수준의 저칼로리로 설계됐다.

코카-콜라음료 관계자는 “몬스터 에너지 특유의 톡 쏘는 탄산감에 진하게 느껴지는 포도의 달달한 맛을 더한 새로운 에너지 드링크”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리온 닥터유 제주용암수 한정판

오리온은 배우 박지훈의 풋풋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라벨에 담은 '닥터유 제주용암수 스페셜 에디션(사진)'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판은 박지훈의 모델 발탁 이후 '용암수'라는 애칭까지 생기는 등 소비자들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기획됐다. 박지훈 라벨은 530mL 3종, 2L 2종 등 총 5종으로 출시되며, 제품별로 서로 다른 박지훈 사진을 적용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오리온은 소비자 호응에 보답하고자 박지훈 브로마이드 증정, '한정판 굿즈' 출시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풋풋하고 깨끗한 박지훈이 담긴 닥터유 제주용암수와 함께 여름 더울 건강하고 청량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GS25·GS더프레시 식품 안전관리 캠페인

먹거리 전반 품질관리 강화

GS25와 GS더프레시가 여름철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식품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간편식과 신선식품 등 먹거리 전반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GS25와 GS더프레시는 제조 단계부터 물류, 매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식품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우선 품질관리 담당자가 협력사 제조 시설을 방문해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제조사의 자체 품질검사와 별도로 추가 점검 체계를 운영해 식품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통 과정에서는 신선식품과 간편식, 냉장·냉동식품을 운송하는 저온 배송 차량을 중심으로 콜드체인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온도 기록 장치 점검을 확대하고, 차량 온도 정보와 연계된 관제 시스템을 통해 배송과정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매장에서는 무작위 상품 수거 검사, 조리시설 위생 점검, 냉장·냉동 상품 적정 온도 관리 등이 이뤄진다. 상품 검사와 위생 점검은 전문 검사기관 SGS와 협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냉장 설비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SEMS)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온도를 관리한다. 이상 발생 시 가맹점주와 본사, 유지보수 업체에 즉시 알림이 전달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서현 기자

진로, 25년 연속 세계 증류주 판매 1위

하이트진로 지난해 9450만 상자 판매 세계적인 증류주 브랜드 자리매김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 통합 브랜드 '진로(JINRO)'가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JINRO)가 영국주류 전문 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Drink International)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World's Best-Selling Spirits Brands)' 조사에서 25년 연속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진로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9450만 상자(9L 기준)를 판매했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브랜드가 속한 진(Gin) 카테고리 전체 판매량을 웃도는 수준으로 세계 증류주 시장에서 진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진로는 200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상의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25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류 소비 트렌드 변화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 통합 브랜드 진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조사에서 2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하이트진로

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한국 소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넘어 세계적인 증류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7월 '진로의 대

중화(Global Popularization of JINRO)'를 글로벌 비전으로 선포한 이후 소주를 세계인의 일상 주류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NS 캠페인과 스포츠 스폰서십, 글로벌 음악 페스티벌 참여 등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하이트진로는 전 세계 91개국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으며, 현지 유통망 확대와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진로가 25년 연속 세계 증류주 판매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가며 글로벌 No.1 소주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주가 위스키, 맥주, 와인과 함께 세계인이 즐기는 대표 주류 카테고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주 문화 확산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면세점, '아리' 판매... 식품 카테고리 키운다

누들·에너지드링크 등 28종 제품

롯데면세점이 팔도와 hy가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선보인 글로벌 식품 브랜드 '아리(ARII)'를 국내 면세업계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아리는 균형 있는 식생활과 건강을 지향하는 '모던 밸런스 푸드' 브랜드다. 제품 개발과 패키지 디자인 과정에 방탄소년단이 참여했으며, 지난 5월 미국 월마트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높은 관심을 받

았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출시와 동시에 아리 판매를 시작했으며, 김해공항점과 부산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김포공항점에서도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판매 제품은 모던 누들, 포스트바이오틱 에너지 드링크, 듀얼 바이오 틱 소다 등 총 28종이다. 모던 누들은 파스타와 라면의 특징을 결합한 볶음면 제품이며, 포스트바이오틱 에너지 드링크는 에너지

보충을 콘셉트로 한 음료다. 듀얼 바이오 틱 소다는 저당·저칼로리를 내세운 탄산음료로 과일 맛과 탄산감을 강조했다.

K-푸드 수요 확대에 힘입어 롯데면세점 식품 카테고리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식품 부문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아리 판매를 계기로 식품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신제품 출시와 연계한 마케팅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롯데칠성음료 '오토몬드' 제품군 강화

롯데칠성음료가 건강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식물성 음료 브랜드 '오토몬드'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제품군 강화에 나섰다.

롯데칠성음료는 식물성 음료 '오토몬드 검은콩단백'과 단백질 음료 '오토몬드 프로틴 커피세이크'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오토몬드 검은콩단백은 기존 오토와 아몬드를 1대 2비율로 배합한 제품에 검은콩 추출액과 검은깨페이스트를 더해 고소한 맛을 강화했다. 검은콩 음료 특유의 비린 맛과 텁텁함을 줄이는 데 집중했으며, 190ml 한 팩에 식물성 단백질 5.4g을 담았다.

함께 출시된 오토몬드 프로틴 커피세이크는 기존 오토몬드 프로틴의 제로슈거·고단백 콘셉트에 커피 풍미를 더한 제품이다. 250ml 한 팩에 식물성 단백질 21g을 함유했다. /신원선 기자

AI로 피부 읽고 로봇이 만든다... '뷰티테크' 경쟁 본격화

틀루랩, 자체 AI 알고리즘 운영
라네즈, 로봇 활용한 체험 공간 마련
한국콜마, 화장품 제조 공정 자동화

국내 뷰티 업계가 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생존 방식을 쓰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피부 진단, 로봇 자동화 공정 등이 K뷰티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감(感) 아닌 '데이터 처방'에 중점을 둔 뷰티 유행이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개인 피부 상태를 진단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맞춤형 제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를 데이터와 화장품의 합성어인 '데이터슈티컬'이라는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정의한다.

실제로 3D 인공지능(AI) 피부 분석 플랫폼 기업 틀루랩의 경우, 독자 구축한 시스템을 앞세워 뷰티 데이터 영역 선점에 나섰다. 자사 뷰티 브랜드 루디언트를 통해 피부 분석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알고리즘 '틀루TI'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K뷰티 팝업 '송 오브 스킨' 현장에서 뉴요커들이 루디언트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체험하며 피부를 측정하고 있다. /루디언트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K뷰티 팝업 행사를 열고 틀루TI를 탑재한 키오스크를 운영했다. 방문객의 피부를 30초 만에 방문객의 평가하고 적합한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했다.

루디언트는 국내에서도 뷰티 특화 약국 레디영에 입점하며 '루미니'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약사 전문 상담 환경에 브랜드가 자체 구축한 시스템의 신뢰도까지 더해 K뷰티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루디언트 관계자는 "화장품 시장에서 AI 기술력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K뷰티 역시 차별화된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해선 뷰티테크 기업으로의 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역시 최근 서울 명동에 '라네즈 서울'을 공개했다. 제품 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뷰티 테크' 시험대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초개인화 뷰티를 위해 25가지 조합 중 맞춤형 스킨케어를 제안하는 '비스포크 크림 스킨', 150가지 색상 데이터와 특허 제조 로봇이 현장에서 즉석 제조하는 '비스포크 네오' 등 고도화된 기술을 집약했다.

이 같은 디지털 전환은 K뷰티 전방의 브랜드사를 넘어 후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조 기업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학계 의료·바이오 역량과 자사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결합해 초격차를 벌린다. 지난 8일 가톨릭대학교와 '코스메디컬·뷰티 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코스맥

스는 향후 5년간 총 11억5000만원 규모의 연구비와 장학금을 투입해 AI 융합 신기술과 피부과학 기반의 바이오 소재 연구에 착수한다.

한국콜마의 경우 이종산업 간 시너지를 노린다.

최근 로봇자동화 전문기업 뉴로메카와 손잡고 화장품 제조의 핵심 공정인 '보존력 시험 공정'을 완전 자동화했다. 그동안 높은 숙련도를 가진 작업자의 수작업에만 의존하던 균액 투입과 교반 과정을 지능형 로봇 시스템으로 대체해 제조 현장의 정밀도와 안전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한 인디뷰티 관계자는 "기존에는 트렌디한 아이디어와 빠른 기획력으로 승부했다면 점차 AI와 데이터, 로봇 등이 융합된 지식 기반 산업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피부 데이터를 축적하면 물론 이를 브랜드나 공정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美 CDC와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팜젠사이언스-티에스바이오, 재생의료 협력

라이선스 계약 체결하고 기술 도입
개발 비용, 라이트재단과 공동 투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보건 기관들과 협업해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사형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CDC가 보유한 주사형 로타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의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개발에 나서게 된다. 또 공정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후 후속 임상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상업화까지 수행하게 된다.

앞서 CDC는 주사형 불활화 로타바이

러스 백신 기술을 개발, 임상 1상을 진행해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기술을 빠르게 국내에 도입하고, 효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생산 공정 구축과 임상 및 상업화 단계까지 진입할 계획이다.

공정 개발에 따른 연구비는 글로벌 재단과 공동으로 투자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6월 라이트재단과 해당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공정 연구개발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라이트재단은 게이츠재단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국내 생명과학 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최초의 민간 협력 비영리 재단으로 중저소득 국가의 감염병 부담 해소에 필수적인 R&D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펼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는 5세 이하 어린이들에

게 심각한 설사와 탈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감염병이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의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소아 사망 원인의 약 24.4%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설사로 조사됐다. 선진국들은 백신을 도입하며 감염률이 크게 감소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사망자의 99%가 중저개발국에 집중돼 있다.

특히 현재 상용화된 경구용 백신은 선진국에서는 약 85%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반면, 열악한 환경 요인과 취약한 영양 상태 등으로 인해 중저개발국에선 효능이 50% 이하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중저개발국은 경구용 백신 보단 주사형 백신 개발을 통해 높은 효과와 접종률 및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올리브영, '올리브 멤버스' 서비스 강화

클래스 등 회원 전용 프로그램 확대

CJ올리브영이 자사 멤버십 회원 '올리브 멤버스'를 대상으로 보상 체계를 한층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확충하는 독보적인 충성 고객 확보 전략을 펼친다.

올리브영은 오는 14일까지 '크리니크X 올리브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스킨케어 브랜드 크리니크와 협업한 것으로 여름철 피부 고민에 대한 해법을 다룬다. 피부과 전문가가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브랜드 대표 제품도 체험할 수 있다. 25일 올리브영 센트럴 강남 타운 내 올리브 멤버스 라운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리브영은 이처럼 입점 브랜드뿐 아니라 외부 제휴 브랜드와 함께 운영하는 회원 전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



올리브 멤버스 회원 전용 '올리브 클래스' /CJ올리브영

인다는 방침이다.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등 개인 맞춤형 뷰티에 중점을 둔 각종 클래스부터 아로마 롤온 만들기, 셀프 경락 등 웰니스 활동도 준비된다. 상위 등급인 골드·블랙 올리브 회원이 매달 모바일 앱에서 응모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리브영의 팬덤을 위해 차별화된 체험형 콘텐츠와 올리브 멤버스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캐릭터 굿즈 감성 더한 에이피알 협업제품 선보

에이피알이 올해 3월 출시한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부스터 프로 X2'에 캐릭터 요소를 넣어 제품 소장 가치를 높인다.

에이피알이 캐릭터 조엔프렌즈(ZO&FRIENDS)와 협업한 '부스터 프로 X2'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엔프렌즈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엔터기업인 아이피엑스(IPX)와 K팝 스타 지드래곤(G-DRAGON)이 만든 캐릭터다. 조아와 앤, 야기, 자기 등이 함께 있다. 특히 이번 한정판에는 조아를 입체감 있게 적용했다. 캐릭터 그대로를 형상화한 헤드캡과 구름 모양 거치대가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서울 성수에 위치한 '메디큐브 성수' 매장에서는 조엔프렌즈를 주제로 한 공간도 운영한다. 해당 제품과 캐릭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중장기 성장 전략 본격화

팜젠사이언스가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팜젠사이언스는 '티에스바이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임상 협력 ▲신약 개발 및 임상 적용 가능성 검토 ▲상용화-제조-유통 협력 ▲공동 사업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팜젠사이언스가 보유한 의약품 개발, 인허가 및 사업화 역량을 기반

으로 한다. 또 티에스바이오는 2017년 설립된 면역세포 및 줄기세포 전문기업이다.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를 연구개발하며 세포 보관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팜젠사이언스는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양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미국 '틱톡샵 K뷰티 콜렉티브' 행사장에 설치된 센텔리안24 부스 전경. /동국제약

동국제약, 북미서 K-뷰티 존재감 키운다

'센텔리안24' 틱톡 행사 참여

동국제약의 데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북미시장에서 소비자 직접 체험 기회를 늘리며 K뷰티 입지를 넓히고 있다.

동국제약은 지난 5~7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틱톡샵 K뷰티 콜렉티브' 행사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에서 브랜드 부스를 운영하며 대표 제품으로 '마데카 크림 타임리버스',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 맥스' 등을 선보였다.

이 행사는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틱톡이 주최한 것으로 글로벌 소비자들과 다양한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기획됐다. 실제로 행사 첫날 250여 명의 크리에이터가 센텔리안24 부스를 방문해 각종 콘텐츠를 직접 제작했다. 일반 소비자가 참여한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부스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청하 기자



월 매출 추이
252,463,204원

평균 수익률
32.64%

잘되는 가게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매출 공개 · 수익률 공개 · 점주 인터뷰로 확인하는
으뜸스시의 경쟁력

전체 32개 지점 중 20개 역대 매출 기록

6/10 (수) 35호점,
으뜸스시 포항효자점 오픈!

1

역대 최대 매장 매출

2억 5천만 원대

사례

2

역대 최대 하루 매출

1,099만 원대

사례

3

역대 최대 수익률

32.64 %

사례

4

역대 최대 세전 이익

8,366 만원

사례

※ 실제 매장 사례 기준 / 지점 · 시기별 상이



왜 지금,
회전초밥인가?

외식업 내
낮은 경쟁 밀도



자동화
운영 시스템

자동화 기반으로
운영 부담 완화



초보 창업자도
가능

본사 교육 · 오픈 ·
사후 관리 체계 지원



서울 및 전국
상권 창업

생활권 중심
입지 상담



창업상담 1644-0622





애경산업 2080, 국가유공자·아동 구강용품 나눔

태광그룹 계열사 애경산업이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2080이 전하는 전 세대 미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 관리 브랜드 2080 대표 제품을 기부했다. 기부 규모는 약 6억 원이며 어린이용 구강 건강 제품을 비롯해 치약, 칫솔을 각각 2080개로 구성했다.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와 부스리기사랑나눔회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역 아동센터 아동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애경산업



동아쏘시오그룹, 소아 심장병 환우 위해 3억 기부

작은 변화에도 생명의 기로에 서는 어린 생명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뻗어온 일호재단이 어린이 환자와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비영리 공익재단 일호재단은 지난 8일 한국심장재단에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치료에 부담을 겪고 있는 소아 심장병 환우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도록 돕는다. /동아쏘시오그룹



하나금융그룹, '히어로 워드 하나'로 군 장병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사기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히어로 워드 하나(Hero with Hana)'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히어로 워드 하나 프로그램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공상 장병의 가족 및 공상을 입은 장병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



NH농협은행, 모두투어와 금융·여행 융합 본격화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여행기업 모두투어와 금융과 여행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여행 특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출시 ▲디지털 기반 금융·여행 연계 서비스 확대 ▲고객 맞춤형 혜택 제공 및 공동마케팅 강화 ▲금융·여행 산업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협은행

인사 ◆**금오공과대학교** ▷소직인사 △기획협력처장 겸 신문방송사주간 임상훈 △미래교육혁신본부장 겸 AI교수 학습센터장 이희진 △도시관리학과 과장형재교육원장 이경준

부음 ▲황경목씨 별세, 백재훈(광주MBC PD)씨 장인상=9일, 광주 VIP장례타운 VVIP 101호, 발인 11일, 오전 9시, 062-521-4444 ▲맹명옥(향년 91세)씨 별세, 김현근(열린연세정형외과 원장)씨 모친상, 전현주(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씨 시모상 = 8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00

CJ제일제당, 희귀질환 성인에 '햇반 저단백밥' 공급

질병청·희귀난치연합회와 MOU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 지원 확대 성인도 7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고원가 특수공정에도 생산 지속

CJ제일제당이 선천성대사이상 희귀질환자를 위한 특수식 지원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한다.

CJ제일제당은 9일 질병관리청,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희귀질환자 특수식 구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페닐케톤뇨증(PKU) 등 선천성대사이상 희귀질환을 앓는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들도 저단백 특수식인 '햇반 저단백밥'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햇반 저단백밥 제품. /CJ제일제당

선천성대사이상 희귀질환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해 특정 아미노산이 체내에 축적되는 질환이다. 환자들은 장애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평생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일반 쌀밥도 자유롭게 먹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 지원은 만 19세 미만 환

자에 한정돼 성인 환자들은 남은 물량을 개별 구매하거나 해외 제품에 의존해야 했다. 일부 제품은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면서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번 협약으로 성인 환자들은 온라인 전용 창구인 '희귀질환헬프라인'을 통해 분기별로 특수식 구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주문 시스템 구축과 신청 자격 관리를 담당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구매 접수와 주문 지원 업무를 맡는다. CJ제일제당은 제품 생산과 공급을 책임진다. 지원체계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2009년부터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아동을 위한 '햇반 저단백밥'을 생산해 왔다. 이 제품은 일반

햇반 대비 단백질 함량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쌀 도정 이후 단백질 분해에만 24시간이 소요되는 특수 공정을 거쳐야 해 생산 시간은 일반 제품보다 10배 이상, 제조 원가는 2배 이상 높다.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이 낮음에도 CJ제일제당은 희귀질환 환자 지원을 위해 생산을 지속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생산량은 약 200만 개에 달한다.

김찬호 CJ제일제당 전략지원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인 환자들에게도 햇반 저단백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도입

대전 태평시장에 접수센터 설치 구매 상품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상인 택배 접수·발송 부담 완화

CJ대한통운이 상생형 물류모델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를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대전 태평시장에 배송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시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집까지 배송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CJ대한통운이 지난해 12월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체결한 전통시장 물류 상생 협업모델 구축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다. 소비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 상인은 택배 접수·발송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 방식도 간편하다. 고객이 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한 뒤 택배 발송 신청만 하면 간편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상품은 배송접수센터



CJ대한통운은 대전 태평시장에서 배송접수센터를 처음 도입했다.

에서 근무하는 배송매니저가 각 점포를 방문해 수거한 후 CJ대한통운 물류망을 통해 전국 어디든지 배송한다.

이번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대전 태평시장은 인근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동 집화장 운영 경험과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QR접수를 연계한 물류 상생모델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거점으로 평가됐다.

CJ대한통운은 대전 태평시장을 시작으로 전상연과 협업을 이어가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상품 전시회 등으로 협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광동제약, 준법·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사내 '윤리데이' 제정 준법·윤리경영 강화

광동제약은 사내 '윤리데이' 제정과 컴플라이언스 위원 격상을 통해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사내 윤리데이 제정에 맞춰 지난 2일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 및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사령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 위원회를 대상으로 사내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CP(Compliance Program) 교육과 내부심사원 기초 교육이 차례로 실시됐다.

회사는 이번 윤리데이 제정을 계기로 기존 부패방지 내부심사 조직인 '부패방지소위원회'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로 격상하고, 내부 감시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는 향후 각 조직 내에서 자율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CP 및

ISO 내부심사-리스크평가 관리 교육, 컴플라이언스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기존 CP실을 부문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고 대표이사직속으로 편제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또 2023년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공고히 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윤리데이 제정을 기점으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자율준수문화를 광동제약의 기업문화로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LX판토스, 물류현장 폭염 리스크 줄인다

협력사 100곳 근무자 3000명 대상

LX판토스가 혹서기 물류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00개 협력사 현장 근무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신형 작업복과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LX판토스는 이번 지원을 통해 물류현장 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9일 LX판토스에 따르면 신형 작업복은 통기성과 흡습·속건 기능을 갖춘 경량 원단의 반팔 칼라 티셔츠로 제작했다. 헝광 오렌지 컬러와 반사띠를 적용해 작업자의 시인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작업복 위에 안전조끼를 별도로 착용해야 해 열감과 착용 부담이 있었지만 신형 작업복은 안전조끼의 기능을 일체화해 조끼 착용 부담을 줄이고 작업 시 쾌적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식염포도당, 쿨토시, 쿨타월, 체



LX판토스가 협력사 현장 근무자들에게 지원하는 하절기 신형 작업복.

감온도계 등 안전용품도 함께 지급해 작업자의 수분·전해질 보충과 체온 관리, 현장 온습도 관리를 지원한다.

LX판토스 관계자는 "혹서기 물류현장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커지는 만큼 온열질환 방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승호 기자

기보, 인천 中소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인천시·인천TP, 기업자금 협약 우대보증·저리융자 사업화 뒷받침

기술보증기금이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전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전환 기업자금 지원사업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술이전기업의 원활한 사업화와 기술전환을 지원하고 인천시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우대보증을 공급하고 ▲보증비율 상향(85→9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3%p ↓,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기술전환 기업자금을 신설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

고 인천TP는 지원대상기업 선정과 추천 업무를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가운데 기보의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았거나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최대 30억원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이전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중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이전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일본의 골든위크, 한국의 황금연휴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지난달 마지막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었다. 토요일부터 이어진 사흘간의 연휴 덕에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보였다고 한다. 5월의 파스한 봄바람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발길을 집 밖으로 이끌기 마련인데, 사흘간의 연휴로 많은 사람이 나들이에 나섰다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는 5월 초에도 연휴가 한 차례 더 있었다. 5월 1일(금요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금, 토, 일 사흘 연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화요일(5월 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이라 월요일(5월 4일) 하루만 휴가를 사용하면 5일 인콰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이처럼 5일 내외의 긴 연휴를 흔히 '황금연휴'라고 부른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간간히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덕분에 우리에게 5일 전후의 황금연휴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골든위크(Golden Week)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의 골든위크도 5일 이상의 긴 연

휴를 언급하는 것은 같은데 그 유래는 또 우리와 다르다.

먼저 일본의 골든위크는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최대 7일가량 이어지는 연휴를 가리키는 일반명사에 가깝다. 이는 1950년대 초부터 정착되었다. 일본에서는 전후인 1948년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祝日法)」을 제정하고 '천황탄생일(天皇誕生日)'을 국민의 축일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에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던 히로히토(裕仁)의 탄생일인 4월 29일이 1948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녹색의 날, 소와(昭和の日)로 이름은 바꾸었지만 유지되고 있다.

이어서 5월 3일 '헌법기념일'과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도 1948년 같은 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48년 제정된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祝日法)」이 일본 골든위크의 기초를 다진 것이다.

그리고 1973년 동법 개정으로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자동 휴일이 되면서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사흘간은 연휴가 고정되었다. 5월 1일 노동절은 일본에서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에 따라서 자체 휴무를 실시하거나 4월 29일과 5월 3일 사이에 주말이 끼게 되면 장기간 연휴가 완성된다.

당초 골든위크의 유래는 이 기간에 일본

의 극장가에 관객 수가 급증하면서 흥행 수입이 연중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되자, 라디오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던 '골든 타임(golden time)'이라는 표현을 응용해 '골든위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언론들이 이를 널리 사용하면서 일반명사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일본의 골든위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일본의 경제 전성기와 함께 크게 늘어난 해외여행 덕분이다. 당시 엔화 강세로 인해 높은 구매력을 가진 일본 관광객의 하와이, 괌, 동남아, 유럽 여행이 급증하면서 그들은 세계 주요 관광지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했다.

한때 골든위크는 일본 경제력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엔화 강세 시절 일본인 관광객은 세계 소비 시장의 큰손이었고 주요 관광지에서는 일본의 골든위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듯하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해외여행이 많이 줄어든 반면, 한국은 황금연휴 기간 공항 이용객 수 경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이제는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도 한국의 황금연휴를 역시 중요한 성수기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종이 한 장



기저수첩 서예진 (정치부)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사소한 물건 위에서 있다. 투표소 책상 위에 놓인 투표용지 한 장이 그렇다.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그 종이 한 장이 부족했다. 지난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기다리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주의를 관리한다는 기관에서 나온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 기초적이라 어처구니를 어디 가서 찾아야 할 지 모르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헌정질서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다. 과거 독재 정권이

선거를 마음대로 휘둘렀기에, 헌법을 통해 정권도, 정당도, 국회도 함부로 선거를 흔들 수 없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줬다. 선관위가 흔들리면 선거가 흔들리고, 선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그래서 선관위는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는 그 엄격함의 잣대를 남에게만 적용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가 50곳이라고 했다. 며칠 뒤 다시 확인하니 91곳이었다. 투표용지 숫자도 못 세더니, 이젠 투표소 숫자도 못 세는 건가.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있어,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고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조차 안 되는 말을 뉘 수로 옹호하나.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먹잇감을 줬다는 점이다. 선거관리는 인간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번 건은 너무 치명적이다. 이러니 대통령과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선관위를 개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현장 보고 체계, 비상 공급망, 책임자 문책, 사후 검증 방식까지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이 틀렸는지, 누가 판단했는지, 왜 늦었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공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투표소가 열리고, 유권자 명부가 준비되고, 투표용지가 충분히 놓여 있어야 한다. 이 기초적인 신뢰를 잃으면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방안 운영을 견어치워야만 민주주의가 살 수 있다.

/sy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0일 (음 4월 2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60년생 어려움을 이기고 여유를 찾게 됩니다. 72년생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사람을 배려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84년생 외출보다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49년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1년생 건강에 무리가 있으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73년생 관재 구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85년생 가까운 곳은 갈지라도 먼 여행은 피하세요.



50년생 피하기 어려운 일이나 의연하게 받아들이세요. 62년생 미련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4년생 깊은 산중에 홀로 있는 격이니 외롭습니다. 86년생 결과가 좋으니 자신있게 추진하세요.



51년생 먼저 말을 걸고 타협하는 게 좋습니다. 63년생 매매나 거래는 좋지 않으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75년생 자금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세요. 87년생 뜻대로 잘 안되니 마음이 힘듭니다.



52년생 지금 조금 부족해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64년생 동료에게 덕을 베풀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원하던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88년생 혼자 하기 보다는 여럿이 함께하세요.



53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줍니다. 65년생 자금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77년생 뜻대로 일이 안풀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89년생 이성인이 좋더라도 너무 늦게 기약하지는 마세요.



54년생 동업자를 만나 일이 순조롭습니다. 66년생 부동산이나 금전문제 주의하세요. 78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90년생 순간적인 기지로 어려움을 쉽게 벗어납니다.



55년생 아랫사람을 챙겨주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67년생 희망하는 일이 잘 이루어 집니다. 79년생 혼자 도모하지 말고 여럿이 함께 의논하세요. 91년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몸부터 돌보세요.



56년생 금전이나 문서 거래는 금물입니다. 68년생 집안에 혼자가 있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입니다. 80년생 쓸데없는 데 힘을 쓰는 격입니다. 92년생 사고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7년생 분실운이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69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고비만 넘기면 좋습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3년생 서두르면 그르칠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58년생 도움을 받아 좋은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마음에 두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94년생 때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59년생 거래의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71년생 시간을 끝낸 불리하니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이동이나 외출은 남쪽이 길합니다. 95년생 운이 좋으니 계획하던 것을 실행하세요.



김상회의四季 마가(MAG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말로 '마가'를 빼놓을 수 없다. 마가(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말한다. 문장을 풀어보면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는 뜻이다. 문장 자체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은 예전에 위대한 나라였는데 다시 예전과 같은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는 정치적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부터 마가를 구호로 내세웠고, 두 번째 집권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국정 지표다. 국제 정세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가라는 말이 낯설 수 있다. 마가는 트럼프 시대의 정치적 상징이면서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마가의 유래는 1980년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레이건은 미국이 경제 위기에 처하자 세계 최강국의 자부심을 되찾자는 취지로 마가를 대선 구호로 사용했다. 다시 잘 사는 나라가 되자는 희망과 미국 우선주의를 결합해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트럼프도 비슷한 효과를 노렸다.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였지만, 제조업이 흔들리고 재정이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는 '다시 위대하게'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번영하는 나라였던 예전의 향수를 자극했다. 마가라는 표현에는 일자리, 무역, 이민, 안보 같은 미국이 현재 처해있는 다양한 이슈가 모두 담겨있다. 다른 나라를 돕기보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투입한 돈을 미국 내부에서 써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마가를 모르면 미국을 알 수 없고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없다. 마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8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32호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AI·반도체·양자기술이 승부처... 세종대 기술료 수입 1위

교육부, 대학 산학협력 활동조사 세종대 173.6억 경희대 97억 건수보다 규모·기술가치 영향 커

대학 기술사업화 실적에서 세종대와 경희대가 기술료 수입 1·2위를 차지하며 서울대와 KAIST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대학 모두 동영상 코덱 표준특허 등 고부가가치 기술이전 성과가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대학 기술사업화 경쟁도 단순 이전 건수에서 벗어나 AI·반도체·양자 등 첨단기술 확보와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공개한 '2025 대학 산학협력 활동조사'에 따르면, 대학 기술사업화 실적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기술이전 건수는 충북대·전남대·경북대 등 국립대가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기술료 수입은 세종대가 173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가 97억4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술료 수입 상위 대학은 세종대와 경

〈대학교 기술이전 표〉

| 기술이전건수 | | | 기술료 수입 | | | 건당 기술료 | | |
|--------|---------|-----|--------|--------|------------|--------|-----------|----------|
| 순위 | 기술이전 대학 | 건수 | 순위 | 기술료 대학 | 기술료 | 순위 | 건당 기술료 대학 | 건당 기술료 |
| 1 | 충북대 | 237 | 1 | 세종대 | 173억6800만원 | 1 | 세종대 | 2억7570만원 |
| 2 | 전남대 | 203 | 2 | 경희대 | 97억4000만원 | 2 | KAIST | 1억6020만원 |
| 3 | 경북대 | 158 | 3 | KAIST | 81억6800만원 | 3 | 경희대 | 1억2770만원 |
| 4 | 원광대 | 157 | 4 | 서울대 | 64억6200만원 | 4 | 서울대 | 9360만원 |
| 5 | 충남대 | 146 | 5 | 성균관대 | 43억1000만원 | 5 | 성균관대 | 8600만원 |
| 6 | 국립부경대 | 140 | 6 | 한양대 | 41억9600만원 | 6 | 한국항공대 | 8360만원 |
| 7 | 강원대 | 135 | 7 | 연세대 | 40억8600만원 | 7 | 한국외대 | 8000만원 |
| 8 | 경상국립대 | 109 | 8 | 고려대 | 36억5500만원 | 8 | 한양대 | 6460만원 |
| 9 | 부산대 | 102 | 9 | 충북대 | 31억2000만원 | 9 | 연세대 | 5310만원 |
| 10 | 국립금오공대 | 99 | 10 | 경북대 | 30억9000만원 | 10 | 광운대 | 5070만원 |

희대에 이어 KAIST(81억6800만원), 서울대(64억6200만원), 성균관대(43억1000만원), 한양대(41억9600만원), 연세대(40억8600만원), 고려대(36억5500만원)순으로 집계됐다.

기술이전 건수는 충북대가 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원광대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사립대는 원광대가 유일했다.

기술료 수입에서는 기술이전 건수보다 계약별 기술료 규모가 순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술이전 계약 1건당 기술료를 비

교하면 세종대는 평균 27억5700만원으로 조사 대상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KAIST(16억2000만원), 경희대(12억7700만원), 서울대(9억3600만원)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건당 기술료 역시 세종대가 KAIST보다 약 1.7배, 서울대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

세종대는 지난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계약 3건을 성사시켰고, 동영상 코덱 분야 표준특허를 활용해 지식재산 수익원을 다변화한 것이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술료 수입 2위를 기록한 경희대도 동영상 코덱 표

준특허 로열티와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성과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표준특허는 국제 기술표준에 포함된 핵심 기술로, 관련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만큼 일반 특허보다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관계자는 "AI·반도체·이차전지·첨단모빌리티 등 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구축해 온 결과가 지난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사업화 실적은 단순 기술료 규모뿐 아니라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 등 연구생산성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대는 연구비 규모가 6000억원 이상인 반면 세종대는 1000억원 수준에서 173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둔 만큼, 보유 기술의 사업화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학 기술사업화의 무게중심이 특허 보유 규모나 기술이전 건수 경쟁에서 벗어나 고수익 기술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전체 대학 기술이전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기술료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산학협력단 기술혁신팀 관계자는 "최근 대학 기술사업화는 단순히 특허를 많이 확보하거나 기술이전을 늘리는 것보다 보유 기술을 실제 사업화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첨단기술과 양자·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도화하는 역량이 대학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체대 희망 고교생, 실기고사 미리 체험한다

내일 '서울미래체육인재하마당' 개최 서울시교육청, 공교육 진학지원 강화

서울 고등학교생 1600여 명이 체육계열 대학 입시 실기고사를 미리 체험한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체육계열 진학 분야에서 공교육 중심의 실기 모의평가와 진학 상담을 제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일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176개교 1607명이 참여하는 '2026학년도 서울 미래체육인재하마당'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체육계열 대학 입학전형 실기고사 모의평가, 대학생 멘토링, 체력 운동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실제 대학 실기고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기록과 역량을 점검하고, 체육계열 진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용산청사.

실기고사 모의평가는 체육계열 대학 전형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자리멀리뛰기, 메디신볼던지기, 배근력, 10m 왕복달리기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제자리멀리뛰기와 배근력, 10m 왕복달리기는 디지털 측정 기구를 활용해 기록의 정확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실기 기록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미래체육인재하마당은 2012년 체

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체육계열 대학 입학전형 실기고사 모의평가에서 출발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통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확대됐다.

참가 대상도 점차 넓어졌다. 2022년부터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가 아닌 일반고 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됐고, 2024년부터는 특성화고와 자사고를 포함한 서울 관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1451명이 참여하며 대규모 체육계열 진학 지원 행사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사에서 축적되는 실기 모의평가 기록을 진학지도용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2024학년도 기록부터는 서울학교체육 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교 현장 교사들이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맞춤형 AI 요약 프레임워크 개발

임희석 컴퓨터학과 교수팀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연구진이 독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복잡한 문서를 쉽게 풀어주는 인공지능(AI) 요약 기술을 개발했다.

고려대는 임희석 컴퓨터학과 교수가 이끄는 NLP&AI 연구실과 HIAI 연구원이 AI 요약 프레임워크 'NRLB(No Reader Left Behind: Multi-Agent Summaries Everyone Can Understand)'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NRLB는 문서를 단순히 짧게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독자의 배경지식과 이해 수준을 반영해 정보를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전문 지식이나 복잡한 공공 문서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팀은 미국의 '쉬운 공공문서 작성



(왼쪽부터) 임희석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교신저자), 컴퓨터학과 정지민 석박통합과정(제1저자) /고려대

법(Plain Writing Act)'에서 강조하는 명확하고 쉬운 공공 문서 작성 원칙을 AI 요약 기술에 접목했다.

NRLB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독자의 관점에서 어려운 용어와 부족한 배경 설명,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식별하고, 개인 맞춤형 배경 설명과 용어 정의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현진 기자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 도내 최고 평가

9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파주시 통일동산관광특구가 경기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파주시는 통일동산관광특구가 '2025년도 경기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총점 93점을 받아 경기도 평가 대상 관광특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파주 통일동산, 동두천, 평택 등 3개 관광특구로 경

기도는 '관광진흥법' 제73조에 따라 매년 도내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편의성, 잠재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현장 평가가 도입됐다. 현장 평가에서는 편의성 25점을 점검했고, 기존 대면 평가방식으로 잠재성 30점, 효율성 20점, 지속가능성 25점을 심사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편의성 23.25점,

잠재성 29.25점, 효율성 19.00점, 지속가능성 21.50점을 받았다. 총점은 93점이다.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야영장 조성 등 신규 사업 추진,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업 체계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외국인 방문객 수에서도 평가 대상 관광특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도 제시됐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만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고, 방문객 국적과 성별 등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해돋이 / 05:10 | 해질 / 19:53

오늘의 날씨

6월 10일 (수)

음력 : 4월 25일

수도권 날씨

17~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이출 지수

연천 13/25

동두천 14/26

가평 13/26

파주 13/25

서울 17/26

양평 15/27

인천 17/24

수원 16/26

평택 15/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시진핑, 방북 이틀째 중조우의탑 참배... '혈맹' 우의 부각
▲나토, 라트비아 침범 드론 격추... 우크라인 불뚱 우려 증폭 /사진 뉴스시스

▲'푸틴·네타냐후 영장 청구' ICC 검사장, 성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
▲트럼프-네타냐후, 이란·레바논 전선서 균열... 관계 이상기류

▲英 "빅테크, 아동 유해 콘텐츠 제한하라"...美 "자국 기업 규제"
▲日 도쿄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단독주택으로 발길 돌린다



AI와 함께 쇼핑을
유통·패션업계
대화형 커머스 강화
니



Life

시로 피부 읽고
로봇이 만든다
뷰티테크 본격화
L2



AX·탈탄소·북극항로 '3대 동력'으로 미래 부산항 댕 올린다

CEO 와칭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지난 2003년 가을, 태풍 매미가 부산항을 강타했다.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이 쓰러지고 일부 부두 기능은 멈춰 섰다. 한 청년 공직자(과장)가 현장을 지켰다. 당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재직 시절이던 송상근 현 부산항만공사 사장(사진)의 얘기다.

그해엔 굵직한 사건들이 유독 많았다. 그중엔 첫 화물연대 파업도 있다. 농성이 16일간 지속된 탓에 많은 이들이 '부산항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며 우려했다. 하지만 2003년 말 기준 부산항은 도리어 국내 항만역사 최초로 연간 10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여년이 흘러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그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서 또 다른 도전 앞에서 있다. 세계 7위의 컨테이너항이자 환적 기준 세계 2위인 부산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로테르담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갈 길이 아직 멀다. 송 사장은 "지난 150년이 물동량이라는 양적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50년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상근 사장 프로필

1968년 경남 함안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 석사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 박사수료

- 제36회 행정 시험 합격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 해수부 대변인
- 외교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 해양수산부 차관
- 부산항만공사 사장(2025년 2월~)

**기술혁신 기반으로 질적 성장 나서
AI 대전환... 자동화부두 밀거름으로
국내 첫 피지컬 AI 탑재 시스템 구축**

**글로벌 항만과 녹색항로 구축 속도
동북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 목표**

**북극항로 본격화... 기회의 창 열어
아시아-유럽간 핵심거점 역할 수행
해양수도권 비상하는 토대 될 것**

◆항만두뇌를 바꾼다... 부산항 AX

송 사장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가 부산항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즉 AX다. 부산항 AX의 출발점은 2024년 4월 개장한 신항 7부두다.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부두로, 부두내 안벽에서 이송·장치구간에 이르는 전 영역의 무인화가 구현됐다. 개장 초기 일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송 사장은 "그 과정에서 쌓인 운영 데이터와 노하우가 진해신항 자동화 부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진해신항에는 한발 더 나아가 피지컬 AI가 탑재된 하역장비 통합제어시스템(ECS)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기존 컨테이너 부두 운영 시스템이 개별 장비에 작업 지시를 내리는 수준이었다면, ECS는 부두내 모든 자동화 장비를 일괄 통제하고 최적 작업까지 스스로 배분하는 '항만의 두뇌'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공사가 자체 개발한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인 '체인포털'에 AI를 접목해, 선박·트럭의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물류 흐름을 관리하는 '진정한 스마트 항만'으로의 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생존여부 달린 사안"... 탈탄소 허브 항만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NetZero'를 선언하며 2050년까지 항만운영 과정에서의 탄소 완전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송 사장은 탈탄소를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규정한다. 부산항은 이미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선의 액화천연가스(LNG)·메탄올 병커링 실증을 완료했고, 2032년까지 부산항 남측 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내 12만 3000㎡ 부지에 37만㎡규모의 LNG 저장탱크, 15만㎡ 규모의 메탄올 저장탱크와 운반·공급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 서부항만·싱가포르항 등 글로벌 주

요 항만과의 녹색해운항로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항만 하역장비의 전기 전환 및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전면 확대를 통해 항만 운영 전반의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선진항만인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이 이미 친환경 연료 병커링 허브 입지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을 동북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으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

◆북위 69도서 댕 올린 북극항로 시대

올해 3월 송 사장은 북위 69도의 노르웨이 트롬쇠를 찾았다. '북극 관문' 도시에서 트롬쇠항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아시아 항만 중 최초로 북극경제이사회(AEC)에 가입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빙 면적이 10년마다 12.1%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극항로가 부산항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준다는 판단에서다.

북극항로가 본격화되면 부산항은 기존 아시아-미주 항로의 '라스트 포트'에 더해, 아시아-유럽 항로에서도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산항 물동량 확대는 물론, 쇄빙선 등 특수선박 수요 증가와 맞물려 경남의 조선·수리업, 울산의 LNG 에너지 허브와 연계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부울경 해양수도권 전체가 비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과 북극권 국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친환경북극항로'(GAC)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산항의 친환경 북극항로 로드맵 추진을 예고했다.

송 사장은 "부산항의 새로운 150년을 열어가게 성장 동력의 원천은 결국 AX, 탈탄소 그리고 북극항로에 있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선언이자 다짐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1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사업 현장을 살피고 있다.

2 LNG 병커링 및 하역작업. /부산항만공사



▲국중박 '유물 코스프레', 올해는 전국 대회로 열린다
▲'8만 부 완판' 세계유산 특별여권 5만부 추가 배포
/사진 뉴스시스

▲한화 이글스배 고교 vs 대학 올스타전 성료...고교팀 승리
▲송성문, 2경기 연속 결장...샌디에이고, 신시내티 6-2로 제압

▲충북청주 가르시아, 2026시즌 K리그2 15라운드 MVP
▲'축구스타' 네이마르, 북중미 월드컵 청신호... "부상, 회복 중"

